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

Stories That Tell No Nothing

마텐 스팅베르크

Mårten Spångberg

번역 김신우

transl. Shinu Kim

에피소드 1

그 모든 것이 시작되었을 때, 목적지는 이야기되지 않았다. 그들 중 누군가는 길보다 풍경이 흥미롭다고 주장했다. 길은 항상 여행자를 어딘가로 데려가고, 이런저런 장소들로 인도하는 반면, 풍경은 그냥 펼쳐져 있고, 좋은 풍경이라면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종점까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감각, 이곳은 언제나 그 어떤 곳이든 될 수 있다는 감각을 가지고 여행한다는 것은 굉장하다. 물론 풍경이 그렇게까지 열려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풍경은 사실 여러 목적지와 휴게소와 간식이나 지도나 피임약 같은 것을 살 수 있는 그럭저럭 괜찮은 가게들이 이리저리 가로지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 낭만적인 것은 풍경에서는 당신이 무언가에 부딪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당신에게 와서 부딪힌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뛰어드는 것은 쉬웠다. 친숙한 장소에서 출발하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수월하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이 여행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상대적으로 덜 친숙한 곳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인지에 따라 달려 있지만 말이다. 그들 중 누군가는, 약간의 망설임 끝에,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언제나 (혹은 아주 자주) 불안을 수반한다고 말했다. 베이스로 귀환할 때의 미니 우울증 같은 것. 진지하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미미하지만, 내면에서는 리히터 스케일로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진동이 발생하는 우울. 몇 달 만에, 혹은 며칠 만에 어떤 이유에서건 다시 집에 돌아올 때, 집이 비어 있는지는 상관없는 문제였다. 미묘하게 깔린 쿼퀴함을 제외하고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내면의 공허함을 무한한 방종으로 채울 수 있는 특권을 선사하기도 한다. 그 미적지근한 회색빛으로 빠져들어, 짐을 푸는 것도 잊은 채, 다 먹을 수도 없는 음식을 앱으로 배달시키고, 척추 맨 끝에 도사리고 있는 우울감에 마음껏 굴복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누군가 있는 집, 심지어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드는 것을 행복하게, 신나게 듣는 척 연기해야 한다는 것은 때로는 위협적인 일이 될 수 있다. 포옹, 친숙한 팔로 끌어안는 몸. 그런 것들에 대해 기대했던 것과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때의 경험이 완벽하게 비대칭적이라는 사실은 늘 옛 같다. 드디어 차분히 안정을 찾고, 쌓였던 긴장을 풀어헤치고, 숨을 깊이 내쉬며 스트레스와 허리 통증이 공중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을 느끼려던 찰나, 웬걸, 숨은 여전히 내쉬지만, 그 즉시 또 다른 불안을 들이마시고 만다.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재난의 가능성.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나, 더는 손 쓸 수 없게 되어버린 보일러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 산사태처럼 밀려든다. 심장은 제 자리를 찾는 대신, 그 반대의 감각, 그러니까 죄책감, 불안, 두려움, 공허함, 후회 따위를 뚫고 가슴 속에 치오른다. 물론 마음이 충만해지긴 하지만, 결코 즐거운 느낌은 아니다.

그 후 한동안은 그들 중 한 명이 행동에 나서서, 집이나 자기만의 방 같은 개념을 폐기해버렸다. 거기서 반쯤 망가진 바퀴가 달린 가방을 유일한 지지대 삼아 서 있는 것만은 안 해도 되도록 말이다.

시간이 지나, 이미 여정이 시작되었을 때, 준비에 관한 대화가 수면에 떠 올랐다. 임박해서 짐을 쌀 때 밀려오는 패닉이나, 목적지에 도착할 때 마주하게 되는 존재론적인 붕괴나, 도래할 스트레스를 예상하면서 시간을 끌 때의 경험들. 그러면서 잊어버릴 수 있었던 것을 계속해서 걱정하며 시간을 유예하고, 가방을 채워나가면서 삶에서 비켜난 비-시간을, 삶과의 거리를 늘어뜨렸던 일들.

“짐 싸는 게 제일 싫어”. 얼마나 부끄러운 자백인가. “짐 싸는 게 제일 싫어”라는 말에는 어딘가 지독히 우쭐대는 느낌이 있다. 왠지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 같은 느낌.

“짐 싸는 게 제일 좋아”라는 말 역시,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는 똑같이 한심한 말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위를 자기돌봄이라고 부르는 부류다. 동네 마트에서 산 바디로션을 감상적인 의미가 담긴 용기에 옮겨 담는 부류.

방향이 부재했기 때문에 뛰어드는 것은 수월했다. 따지고 보면, 목적지가 없다면 실망할 일도 없다. 설령 어딘가에 도착해놓고 보니 그게 여행의 끝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실망할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이미 알고 있는 것만을 탐험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탐험은 알지 못하는 흐릿한 영토에 발을 들여놓는 것일까? 탐험은 언제나 방향과 목적의식이 있고, 심지어는 일련의 도구를 수반한다. 탐험은 엉뚱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는 있지만, 어딘가 친숙하고 안정적인 곳에서 출발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의지할 곳이 없는 순간이 오면 탐험가는 결국 자기 자신을 지지 삼을 것이다. 탐험은 어딘가 열려 있다는 느낌, 자유롭게 모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동시에 정보든 뭐든 흡수하거나, 수확하거나, 수집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따지고 보면 결국 탐험은 모호한 영토들을 합병하고, 거기에 이미 수립된 지식의 형식에 따라 가치를 부과하는 행위다. 진부한 얘기지만, 탐험은 제국주의적인 실천이다.

여행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 결정하는 것이 점점 더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유기적으로 펼쳐지게 두기로 했다. 수단은 언제나 가능한 결말들을 암시적으로 제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단을 미리 결정하는 대신 우연에 맡기면, 목적지의 결정을 최대한 유보할 수 있다. 쉬이 예상할 수 있듯, 그들 중 누군가는 우연이 생각만큼 임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주어진 선택지들이 유한할 때 말이다. 하지만 이런 말로 불필요한 법석을 떨 필요는 없었다. 이 여정은 체제 이론가들을 위해 고안된 여행도, 통계학적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학자들을 초대하는 패키지여행도 아니었으니 말이다. 각자 방식대로 사는 거다. 유기적인 방식은 이래저래 좋은 접근인 것 같았고, 희미하게나마 가능한 반대의 지점들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어딘가 만족스러웠다.

어려운 출발이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는 여정에 신용카드와 충전기 말고는 뭘 가져가야 하나? 최소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여행 준비는 영원히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다행히 출발하기 전에 어떤 순간이 발생했다. 누가 시작했는지, 누가 이어 나갔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일은 이런 식으로 펼쳐졌다.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진짜로 나타난다는 것. 어떤 약속에 늦게 나타났나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나타난다는 것. 나타난다는 것은 그 어떤 예상보다도

앞서 나가는,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고 여행에 떠나는 것,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기술 아닌가? 일반적인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기대로 가득 찬 꾸러미를 잔뜩 들고 나타나는데, 이 기대들은 늘 숨겨진 정치적인 함의와 윤리와 도덕 따위에 흠뻑 적셔져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기대는 경험을 가로막거나, 불확정성을 몰아낸다. 기대는 무방비 상태에 대한 방어 기제다. 옛말에, 바지를 무릎까지 내렸는데 화장실 문이 열린다거나, 집 안을 훑쳐보다가 수염이 우체통에 낀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 말이다. 기대는 장갑과 털모자로 대변되는 상징적인 드레스 코드다.

나타난다는 것. 출발은 무언가 뒤에 남겨졌다는 걸, 어떤 형태로든 무언가가 남았다는 걸 의미한다. 안도감이나 죄책감 같은 것. 수치심, 배신, 우정, 아니면 집. 물론 기억도. 출발에 있어서 기억은 언제나 문제가 된다. 물론 기억은 대체로 문제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는 특히 기억에 애착을 갖고 그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는 수상쩍다고들 여긴다. 한 사람이 모은 기억의 양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미래의 양과 반비례한다. 기억은 앞으로 오게 될 것에 걸림돌이 되고, 체제를 막히게 하고, 아무도 살지 않았을 풍경에 길을 만들어낸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어떤 이미지가 형체를 갖기 시작했다. 무엇을 남기고 갈지 슬퍼하며 미래 속으로 뒷걸음질 치며 들어가는 것. 출발은 그런 걸 의미한다. 이제 이들은 씩 웃고는 그로부터 돌아서야 할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출발’ 대신 ‘떠나기,’ 과거에 등을 돌리고 여행에 나서기, 그게 뭐였든 간에 놓아주기. 그들은 바로 그 순간, 출발보다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떠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나타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훈련이나 재능이 따라야 한다. 특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떠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능력이다. 한 존재가 마치 속삭임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이 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서서히 사라질 수 있을까? 그녀는 마치 한 번도 이곳에 존재한 적이 없는 것처럼 슬그머니 떠났다. 부재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심지어는 부재의 부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다른 한편, 떠날 수 있는 것도 특권이라고 볼 수 있다. 출발은 책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떠나는 것은 외로움을 들이마시고 책임을 내뱉는 것이다.

금단의 사랑에 관한 영화에서 연인들은 함께 떠나는 환상을 갖는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보통 사람들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곳으로 떠나자. 이때 출발이라는 말은 결코 쓰이지 않는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언제나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떠나는 것이다. 어느 순간 사고가 났다. 어떻게 몸에 가해진 경험이 그렇게나 많은, 이질적인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제기되었다. 눈을 감으면 패인 자국과 흉터와 상처를 더듬을 수 있다. 어떤 흔적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고, 어떤 것들은 희미해지거나 아물었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전히 피부에 반향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눈을 다시 감는다. 몸에 남은 손길의 기억은 언제나 압도적이다. 피부는 열려 있고, 때로는 닫혀 있다. 공항에서 한 남자가 공공 장소와는 어울리지 않는 어조로 “손대지 마”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남자는 같은 말을 한 번 더 했는데, 이번에는 욕설과 불필요할 정도의 공격성이 뒤섞였고, 그러는 바람에 그는 그냥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건 떠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너무 여러 번 떠나야 했던 사람의 절규였을지도 모른다. 그도 아니면 눈을 감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젊었던 어머니의 손길이 남긴 흔적.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똑같은 어머니의 손길이지만 세월에 몹시 거칠어졌던 손. 경험을 전달하는 손길, 살면서 만났던 모든 다른 손길과 공명하는 손길.

어머니의 손길은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흔적, 또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남긴 흔적, 더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없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어머니의 흔적이다. 혈통은 끊길 수 있고, 새로운 손길은 찾아야 한다.

에피소드 2

여행할 때 그 여정이 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한 여정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도 있나? 여행이 운명에 의해 전개되는 것, 숙명이 직조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인가? 이번 여행은 분명 내면으로의 여행은 아니었다. 전혀 아니었고, 그보다는 확정성이 물러나는, 혹은 끊임없이 환상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여행이었다.

환상. 그들은 이미 주기적으로 환상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이 단어가 다소 동양적으로, 그러니까 선불교스럽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환상은 언제나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기보다는 결핍이나 부족함과 공명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통속적인 의미에서의 환상은 현실의 이상적인 버전들로 구성된 것으로, 결국 현실로부터 도망가기 바쁜 사람을 승인해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 환상을 일종의 도피로 이해하고 싶은 유혹도 있다. 현대 사회가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파괴한 종교적 믿음에 대한 대체물로 간주하고 싶은 유혹 말이다.

시간의 가속. 그 악명 높은 시간 경험의 분절. 시간의 가장 작은 단위까지 상품화되는 현상. 이런 요소들은 오늘날 비전을 갖는 것이 왜 불가능해졌는가를 흐릿한 초점으로나마 살피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비전은 과거의 것이다.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생성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가능했던 것이다.

이미 여행 초반에 명백히 드러난 것은, 환상 그 자체가 결핍이 아니라, 인간에게 결핍된 것이자, 동시에 인간 안에서 흘러넘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환상을 몹시 과장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그런 환상에 빠질 여유 따위는 없다. 아무튼, 환상이 이거든 저거든, 이 여행은 실재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물리적인 이동이었다.

누군가의 발자취를 따라 여행한다는 것. 그것도 좋지만, 그것이 진정 여행인지, 뭔가 다른 것이 아닌지는 질문해볼 수 있다. 포렌식 수사에 좀 더 가까운 건 아닌지. 책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정해진 길을 여행하는 것은 일종의 안도감을 주는 경험일 수 있다. 독창적인 여행자는 그가 내린 각종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정해진 길에서는 내가 한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정해진 대로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면 그만이다. 그밖에 또 다른 선택지는 길이 정해져 있는 여행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관점들, 새로 보는 방식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대안적인 발견들에 다다르는 것이다. 몇 명이나 필리어스 포그의 여정을 따라가 봤을지 궁금하다. 예상보다 적기를 바랄 뿐.

편지는 늘 도달해야 할 곳에 도달한다고들 하는데, 여행도 그럴까? 엽서는 이래저래 뒷면에 적힌 주소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올바른 수취인에게 도달하기 마련이다. 어쩌면 이걸 결국 따지고 보면, 모든 여정이 자신의 것, 즉 여행자의 것이라는 뜻일지도 모른다.

여행은 절대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다. 여행은 언제나 내가 돕건 돕지 않건, 제 종착지를 찾고야 마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행은 절대 나의 것이 될 수도 없다. 진짜 여행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니까.

생각해볼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는, 모든 여행은 어느 정도 다시 회귀하는 여행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다시 시작점으로 회귀하는 여행. 일종의 퇴행. 그렇다는 건 모든 여행이 결국은 집으로 회귀하는 문제라는 뜻일까. 그건 끔찍한데. 아니, 모든 여행이 결국 근원에 관한 문제이거나, 기반을 찾는 것,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라면. 나의 모든 여행이 회귀이자, 어디론가 회귀하는 여행이라면. 설사 그 목적지가 수천 번 바뀌더라도,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이 내가 진정 머물러야 할 곳을 찾는 거라면. 그게 전부라면 차라리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편이 낫다. 또 다른 방법은 ‘회귀’를 근원이나 진정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찾는다는 의미 대신, 정복이나 점령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내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이건 회귀한다는 것. 그리고 ‘회귀한다’는 건 ‘되돌아온다’는 것과 다른 의미다. 그녀는 회귀라는 개념을 집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랬을 때, 집이 없다면, 출발지가 없다면, 목적지는 대체 뭐란 말인가?

그 둘은 필연적으로 도래하게 될 침묵이 두려웠다. 그 어색한 순간을 떨쳐버리기 위해 계속해야 떠들어야 하는 상황이 그들 모두를 두렵게 했다. 이 세상에는 불가능한 상황을 이룬바 떠드는 것으로 극복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많다. 이를테면 계속해서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얼어죽었을 거라는 둥. 마치 무엇에 관해서든 떠들기만 하면 자동으로 기운이 나는 것처럼.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반드시 다친 사람에게 말을 건다. ‘날 두고 떠나지 마...’ 아니 도대체 ‘넌 할 수 있어’ 따위의 클리셰를 들으며 죽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나? 그녀는 언젠가 도둑맞았던 때를 떠올렸다. 그 기억은 아주 쉽게 떠올랐다. 아니, 그 사건은 수년 전에 일어났음에도 그녀의 대뇌 피질에 영원히 각인되었다. 정확하게 트라우마가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그녀 곁에 존재했다. 아니, 어쩌면 상존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트라우마가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어머니도 아이도 트라우마의 일종일 수 있고, 아무도 안 듣지만 떨쳐버리기는 진심 힘든 비틀스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롤링 스톤즈도 포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건 더 최악이다. 아직 숨 쉬고 있는데 벌써 미라가 된 거나 다름없으니까. 아직 숨 쉬고 있는 거 맞나. 트라우마는 능동성인가 수동성인가, 아니면 능동성인데 변치 않는 것인가? 트라우마가 수동적인 것이라면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잘하면 제거할 수도 있다. 어떤 영화들에서 기술이나 마법 같은 걸 이용해서 특정한 기억을 삭제하는 것처럼 말이다. 반대로 트라우마가 능동적인 것, 활동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변화한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트라우마의 자격을 상실하고 그저 이상한 것, 상처 같은 것, 아니면 짜증 나는 것이 되어 버린다.

어쩌면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다. 스페인은 어떨까? 트라우마가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모순이 아니다. 트라우마는 기독교 믿음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윤리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일까? 누구더라, 한 소련의 시인인지 뭔지 하는 사람이, 소련연방에서는 정신분석학이 성립될 수 없는 용어라고 지적하지 않았던가? 모든 것이 국가 소유인 곳에서는 개인이라는 주체가, 즉 트라우마나 히스테리, 심지어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가진 개인이라는 존재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로 트라우마를 겪은 것은 자본주의지, 소련이 아니다. 트라우마는 소련 문화권과 양립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누구였더라. 시인이었던 것 같은데, 심지어는 노벨상 수상자였던 것 같은데, 알게 뭐람. 그녀는 생각했다. 그러느라 원래 발전시키고 있던 생각으로 돌아갈 방법을 놓쳐버렸다. 연상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녀는 정신이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지 질문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 생각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 그녀는

아무것도 발전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발전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만큼, 그 저항하고자 하는 시도가 결국은 똑같은 발전의 환영이라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트라우마와 같은 문제, 그러니까 정신은 결코 사람들이 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바깥에서 이해될 수 없다는 문제에 부딪힌 것일까? 그녀는 발전이 인류에 근원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을 일축했다. 어떤 것들은 발전하고, 어떤 것들은 발전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분법적 대립으로 배열하라고 훈련받은 우리 인류의 암울한 모습이니까. 그녀는 이 문제에 관해 시간을 갖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조금 더 시간을 가졌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도 얼마나 더 오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시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씩 늘어놓을 수 있는 개체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생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과 동일한 주의력의 양식 안에 기입된 것일까? 그녀는 자기만의 영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이 영화처럼 펼쳐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대놓고 경멸했다. 인간 문화는 이미 이미지로 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문화권에서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너무 많은 문화권에서 그렇다. 이 여행, 이들이 어쩌다 보니 어느새 합류하게 되어 버린 이 여행도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 할리우드가 모든 여행을 로드 무비로, 긴장과 이완 냄새가 잔뜩 나는 극적인 서술로, 반드시 끝나야만 하는 무언가로 만들어버렸다는 점은 비극적이다. 이제 모든 여행은 영화적인 95 분 안에 구겨 넣어졌고, 정처 없이 떠도는 기행이나 짜증 날 정도로 유목민적인 노숙 같은 요소들은 사라졌다. 하지만 품격 있는 여행은 출발하는 것도 아니며,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하는 경험을 용해하고, 무엇보다 목적지에 관한 가장 희미한 소문마저도 피해버린다.

에피소드 3

뒷좌석에서 들리는 불평스러운 중얼거림. 우리 대체 언제 도착해? 중간 지점까지만 해도 진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간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목적지가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는 느낌이다. 더 멀리 여행하면 할수록 여행의 끝은 점점 더 멀어진다. 여행자들은 종착지가 눈에 보이는 순간에서야 비로소 안심하고, 숨을 내쉬고, 도로 위 긴장을 떨칠 수 있다. 그때까지 거리는 언제나 나뉘고, 남겨진 절반은 언제나 멀다. 여행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정의상 언제나 시작과 중간, 끝이 있고 우리는 영원히 그 중간에 머무는 것 같기 때문이다. 중간이 좋은 경우는 오직 그것이 시작 뒤에 달려오지 않을 때와 끝을 피할 수 있을 때다. 방향성에 붙들린 중간은 결코 충분한 중간이 될 수 없다.

그녀는 삶을 여행이나 길로 이해하는 한, 나이 든다는 것은 언제나 더 적은 미래를 갖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젊은 사람은 기대할 수 있는 미래가 더 많다. “난 너무 늙었어”라는 선포는 사라지는 미래에 대한 애도이다. 어느 시점이 되면 과거가 한 사람의 미래를 따라잡는다. 미래가 뒤로 밀려나는 경험을 안고 살아간다는 건 외로움을 잘 견뎌내는 일과 같다. 길은 여행자에게 방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위안을 준다. 여행 중에 경로에서 이탈할 경우, 언제 이탈했는지를 되짚어보고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길은 안전한 느낌을 준다.

“여기 어딘지 알겠네”라는 말은 일종의 멜랑콜리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다른 어떤 곳도 아닌 바로 여기라는 생각. 어디인지 모르는 곳에 대해 기대치를 갖기는 어렵다. 여행을 길로 생각할 때 뒤를 돌아보지 않기 어렵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건

중요하다”라고들 말한다. 정말 그럴까? 그녀는 일본 정원이 되고 싶었다. 누군가의 갈퀴질로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그런 정원. 갈퀴질하는 사람들은 이름이 없다. 아, 프랑스만 빼고. 프랑스에서 갈퀴를 든 사람들은 전부 이름이 피에르다. 일본 정원은 비대칭적으로 뒤엀킨 불완전함들, 그 어떤 과거도, 근원도, 기대도 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불완전함들로 직조된다.

그녀는 갑자기 좌석 등받이와 자기 몸 사이에 생겨난 압력을 자각했다. 한 사람이 거의 전적으로 그의 과거에 의해 정의된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람이 편하게 쉴 때면 몸을 뒤로 기대게 되고, 그렇게 기대면 압력의 방향이 달라져 척추가 좌석 등받이를 밀게 된다. 그 변화는, 그녀가 투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역사의 소유물이었던 사람이 그 역사를 소유하게 되는, 일종의 소유권의 변화처럼 느껴졌다. 자신감이 있다는 것과 자신의 역사를 소유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다. 그녀는, 그 경험이 싫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표방하는 역사와 소유권 간의 가까운 거리를 도통 좋아할 수가 없었다. 역사가 사적으로 소유될 수 있다는 자각은 영 싫은 느낌을 줬다.

먼저, 내 역사는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건 복잡하게 교차하는 특수성들이 짜증 날 정도로 뒤죽박죽 섞인 것이라 절대 곧게 정리될 수 없다. 둘째, 나라는 개인이 특출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를 강요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족보나 혈통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원시적으로 이해하는 가여운 이들이다.

어느 해변, 옷을 과도하게 차려입은 한 노신사가 손에 든 금속탐지기의 소리. 전체적으로 랜덤한 것치고는 꽤 마음을 끈다. 소리의 주파수를 높이는 것은 대상과의 거리이지, 나이나 혈통이 아니다. 헌신적인 고고학자가 숭배하는 것은 대지이지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이 아니다.

발견들은 얼굴의 애교점처럼 전체를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 고고학자가 뭔가를 발견하거나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발견될 수 있도록 대지가 허락하는 것이다. 흙은 이런저런 것들을 표면으로 밀어 올리고 고고학자를 그곳으로 인도한다. 이 발견들에는 어딘가 흥미로운 점이 있다. 고고학자의 일은 뭔가를 발견하는 것일까, 아니면 목격하는 것일까? 고고학이 뭔가를 발견하고 땅에서 추출하는 것이라면 그 실천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 방식을 재생산한다. 이때 고고학은 도둑질로 둔갑하고, 경제와 영광의 문제가 되고 만다. 하지만 고고학이 뭔가를 목격하는 것이라면, 고고학자는 돌보는 사람이자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된다. 돌보는 사람은 자식이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자신감을 얻고, 수영하는 법을 배우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부모와는 다르다. 목격자이자 돌보는 사람의 정체성이 부여된 고고학자는 특정한 이유로 돌봄을 수행하거나 그에 대해 대가를 바랄 수 없다. 목격자는 익명이고, 이런 형태의 돌보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누구의 편에 서지 않을 때 진정한 관대함이 발생하고, 용감한 자만이 과감히 무관심할 수 있다.

대체 데이트 상대를 왜 연극 공연이나 콘서트에 데려가는 걸까? 그녀는 누군가를 초대해놓고 둘이 나란히 앉아 거의 아무런 교류도 하지 않는 것이 좀 괴이적다고 생각했다. 공연이 마음에 든다는 시선을 보내면 거기에 공감하는 작은 고덕임만이 오가는 시간. “그래도 공연 끝나면 할 말이 좀 있겠군.” 언어 교환을 하기 위해서 극장에 가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데이트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럼 세 번째나 스물한 번째 데이트는? 그때도 극장에 가서 연극 한 편을 보고 나서야 대화가 가능하려나. 이상한 역할 놀이가 아닐 수 없다.

그녀는 이번 여행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다. 함께 나누는 경험, 함께 나누는 여행이 더 낫다는 압박에 굴복한 것일까? 동반자 없이 혼자 하는 여행은 어딘가 부정적이라고 여겨진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은 친구가 없는 사람, 다들 싫어해서 아무도 같이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모험은 정말 구리다고 다들 합의한 것 아닌가? 혼자 하는 여행은 진짜 여행이 아니라, 순례나 과제처럼 여겨진다. 할리우드 코미디에서 남편의 유골을 어딘가 특별한 장소로 가져가야 하는 어느 나이 든 여자가, 모두 털어버리려고 떠나는 사람의 이야기. 나는 극장에 다른 사람과 같이 가고 싶지 않다. 내 주의력의 절반은 친구가 실망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데 쓰이고, 다른 절반은 우리가 한 경험에 관해 뭔가 지적하면서도 색다른 해석을 생각해내는 데 쓰일 것이기 때문이다. 극장 경험에서 제일 좋은 부분은 집에 혼자 오는 것이다. 똑똑한 척하거나 제대로 된 경험을 하지 못해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 대성당 앞에 섰을 때 가장 짜릿한 순간은 혼자일 때다. 그 순간에, 그곳에서 비로소 쌍방향의 관계가 생겨난다. 다른 사람이 개입되는 순간 그 관계는 삼각이 된다. 쌍방의 관계는 관계 그 자체인 반면, 삼각관계에는 관계의 퀄리티와 협상이 개입된다. 퀄리티는 언제나 애물단지야, 그녀는 생각했다.

그곳에 마침내 도착하면, 물론 그 노력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압도되는 감각 말고는 그 어떤 것에도 참여하고 싶지 않다. 완전히 압도되는 것을 참여의 한 형태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압도되는 것, 혹은 낮이 나가버리는 것은 참여와 정확히 반대된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열어두는 것이다. 참여는 기대와 특정한 가치의 실현을 의미하고, 그건 완전한 압도를 용해해버리는 해독제다. 압도되는 것과 익명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 둘 다 바스러지고 만다. 함께한다는 것은 과대평가 되어 있다. 혼자 여행하는 걸 선호한다는 이유로 평가받고 싶지 않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 무엇도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녀의 관심사는 아무것도 발전시키지 않는 것이었고, 그건 그녀의 존재감을 어딘가 이질적으로 만들었다. 화장실에 같이 가는 것이 좋아 보이는 유일한 상황은, 같이 가서 대화를 나누거나, 마약을 하거나, 화장할 때가 아니라, 그냥 서로 볼일을 볼 때다. 특히 그냥 평범한 화장실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녀의 머릿속에는 파리에 있는 카페 보부르의 화장실이 떠올랐다. 심하게 과한 디자인, 물론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압도적이긴 하지만 다른 이유다. 그런 형태의 압도는 단순히 ‘시발 이게 뭐야’에 가깝다. 반면에 함께 오줌을 누다는 건 지독히 평범한 일이기 때문에, 전혀 압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되려 꽤 묘할 수 있다. 특별히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숭고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 함께이지만 그 경험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와 오줌을 누다는 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하는 것이다. 남자 화장실에서도 다르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엄청난 성당이나 그랜드 캐니언 앞에 섰을 때. 누군가와 함께라면, 특히 아는 사람이나 같은 침대에서 자는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을 보는지보다 ‘함께’ 본다는 점이 늘 전면에 나서는 것 같다. “우리 그때 그거 기억나...” 그게 뭐였는지는 사라져 버리고 “너 정말 웃긴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라거나 “물이 더럽게 비셨는데 심지어 차갑지도 않았어.” 따위만 기억난다. 경험을 정의하는 것은 웃긴 모자도, 생수병도 없이, 그곳에 오롯이 혼자 서 있는 순간이다.

도시에 도착했고, 그걸 보러 갔고, 다시 호텔에 돌아왔다. 그 경험은 정말 바보 같았고, 거의 무균성이었지만, 그것과의 만남은 압도적이었다.

“그게 뭐였는데, 어떤 느낌이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런 느낌도 안 났고, 아무런 생각도 안 들었어. 그게 뭐였는지 전혀 모르겠어. 그냥 압도적이었는데?”

에피소드 4

그들은 자리에 앉았다. 그다지 아늑한 방은 아니었다. 크지도 작지도, 분명히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았다. 딱 그런 부류의 장소에 걸맞은 크기였다. 정통성을 강조하는 특이한 건축적 요소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범한 방이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건 홈메이드였고, 매 순간 전통이 좋다고 말하는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그런 장소였다.

그녀는 마주 보고 앉는 전통적인 구조에 회의적이었다. 공간만 두고 보면 효율적일 수 있지만 그밖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말이 안 된다. 맞은편에 앉는 것은 대립적이기도 하고 그날 저녁 식사가 결혼이나 이혼처럼 뭔가 근본적인 것을 결정해야 하는 자리처럼 느껴진다. “다 집어치우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맞은편은 좋은 시작이 아니다. 아니, 식당에서는 나란히 앉아야 한다. 무엇보다 민망한 침묵을 극복하기에도 이 구조가 훨씬 낫다. 나란히 앉으면 다른 손님이나 길거리 행인들을 관찰하고 그들에 대해서 떠들 수도 있고, 아름다운 가을 노을을 물끄러미 볼 수도 있다.

같은 편에 앉으면 절대 어색해지지 않는다. 나란히 앉으면 웃기도 쉬워질 뿐더러 몸과 몸 사이의 가까운 거리가 민망한 침묵을 쓸어내기 때문이다. 테이블 한편에 같이 앉는 건 대립이 아니라 협정이고 테이블은 우리를 바깥으로부터 살짝 보호해준다. 나란히 앉으면 닫힌 공간이 아니라 초대의 공간이, 열림의 제스처가 생겨난다. 나란히는 너와 나 사이에 사적인 영역을 조성하는 대신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공간을 만들어 낸다. 맞은편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존재하는 일종의 게임이 된다. 체스나 바둑은 언제나 맞은편에 앉아서 시작한다. 참가자들이 나란히 앉는 보드게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란히는 게임을 포기하고 놀이를 강조한다. 결과도 없고, 동의해야 할 것도 없고, 정복해야 할 필요도 없다.

어쩌면 그래서 자동차에서 나누는 대화가 그토록 만족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 자동차가 남자들이 말을 주고받는 몇 안 되는 장소인 것도 그 때문이다. 남자들이 유일하게 대립적인 교류 방식 대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소.

상대방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무감 없이 함께 이야기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다. 아이 컨택 없이 나누는 대화. 맞은편에 앉았는데 상대방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건 거의 확실히 바람을 피웠거나 다음에 여행 가려고 모아뒀던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거다. 맞은편에 앉아서 하는 모든 신체적 접촉은 추파로 느껴지거나, 상대의 손에 손을 올린 채 “널 많이 아껴” 따위를 내뱉는 촌스러운 접근이 되기에 십상이다. 나란히는 훨씬 더 역동적이다. 어깨를 가볍게 주먹으로 칠

수도 있고, 머리를 맞대고 작당 모의를 하거나, 서로의 귀에 속삭일 수도 있고, 대담하고 금지된 관능을 나눌 수도 있다.

우리가 키득거릴 수 있는 것은 나란히 앉을 때다. 나란히 앉을 때 웃음이 우리를 하나로 모아준다. 맞은편에 앉은 이들은 거래를 성사 시키거나 세력을 연합한다. 나란히 앉은 이들은 우정과 신뢰와 바로크적인 음모 사이 어딘가에서 손을 잡는다. 나란히 있는 얇은 물의 영역이다. 해변에서 두 여인이 바닷물에 몇 미터쯤 들어가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 이야기를 나눈다. 햇살이 수면에 반사되고, 특별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란히 있는 뭐가 누구 것인지 알 수 없게 되고 대화가 풍경이 되는 곳이다.

남자들이 함께 웃을 줄 모른다는 건 어딘가 비극적이다. 이런 구분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향해 웃는 것과 누군가와 함께 웃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물론 아주 많은 예외가 있지만, 레스토랑처럼,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남자들, 특히 자기 정체성을 혈통에 의거해 경험하는 부류의 남자들은 위에서 아래로 웃는다. 동료 인간의 실수나 결점이나 부족함을 향해 웃는다. 억압하고 비하하는 웃음이다. 서로 맞은편에 앉아 마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웃음이다. 웃는 능력, 진짜로 웃는 능력을 상실하거나 빼앗긴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지독히 슬프다. 적어도 유럽 남성들에게 웃음은 권력과 분리될 수 없다. 특히 부다페스트보다 서쪽에서 태어난 이성애자 백인 남성들에게는. 분리하는 웃음, 그 저류에 두려움이 흐르는, 부케에 사디즘이 진동하는 웃음.

그녀는 한 친구를 떠올렸다. 이제서야 어떤 깨달음이 급격한 멜랑콜리아와 더불어 찾아왔다. 그 친구는 수년 전부터 웃지 않았다. 그녀는 웃음을 그만두기 이전의 그를 알지 못했다. 그가 자기 웃음소리나 고르지 않은 치열이 부끄러워 웃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웃음을 손으로 가리는 것은 벨기에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전유물이다. 그는 웃음이 바닥난 것도 아니었고, 지루한 것도 아니었다. 오만해진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어느 날 그냥 멈춰버렸다. 웃음은 더는 그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고 행복하고, 사회적이고, 활달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누구나 머지않아 그가 웃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는 다른 사람이 웃는 것을 좋아했고 많은 사람을 웃게 했다. 누군가는 그가 웃긴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의 유머 감각을 대단히 좋아했지만 그는 결코 함께 웃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외로움과 체념이 느껴질 때면 눈물이 차오를 것처럼 마음이 아팠다. 특히 그가 웃음의 원천인 상황들에서.

그녀는 여태껏 그게 상처, 트라우마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녀는 갑자기, 여러 해가 지난 지금에서야,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트라우마는 있었지만, 상처는 없었고, 어쩌면 그게 더 슬펐다. 그건 저항의 한 형식이었다. 어쩌면 비자발적인 저항. 방향성을 갖는 웃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부. 목적을 갖는, 혹은 더 단순하게는, 다른 사람을 빌미로 발생하는 웃음에 대한 저항. 결국은 함께하는 웃음을 끝까지 고집할 만큼 강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비탄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였을 수도 있다.

흰 벽이 원목 테이블과 더 어두운 채도의 의자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어쩌면 귀족적으로 높은 방의 층고와 어울리도록 사람들을 너무 바르게 앉게 만드는, 등받이가 아주 높은 의자들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녀의 어머니는 어두운 불빛 아래 식사하기를 고집했는데, 그녀는 그게 짜증이

나지는 않았지만 늘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녀는 큰 창문이 난 피자 가게에서 마음이 제일 편했고, 특히 직원들이 느긋해서 피자 서빙을 무슨 경기처럼 생각하지 않는 곳이 좋았다.

그녀는 자리를 뜨고 싶었다. 메뉴판을 받기도 전에. 그냥 거기서 나가야만 했다. 장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허를 찔렀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방. 지나치게 균일하게 놓인 테이블들. 메인 코스가 끝나고 화장실에 가려면 테이블 사이를 꼬불꼬불 지나야 하는 구조. 거친 척하는 웨이터들의 핏이 맞지 않는 조끼. 적어도 파리의 웨이터들은 모든 것을 익명으로 남겨 두는 품위라도 있다. “여기 되게 개인적이다.” 사람들은 그게 좋은 것처럼 말한다. 우리 부엌으로 당신을 초대할게요. 온 김에 내부의 분란도 보세요. 아 맞다, 우리 가족은 삼대째 여기서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내가 식당에 오는 이유는 밥을 먹기 위해서지 어느 다큐멘터리에 엑스트라로 출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마치 음식을 요리사의 성격이나, 가족 간 원한이나, 몇 대째 내려오는 레시피로 양념하면 그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한다. 기억이 닿기 전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요리라면 훌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 모든 건 그곳이 끝내주게 더럽다는 사실, 요리사가 메뉴를 바꾸기에는 너무 겁쟁이라는 사실, 독립하기에는 너무 의존적인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 레스토랑은 심각하게 신경증적인 환경이다.

어쩌면 세계화라는 말이 발명되기 전 어느 시점에는 개인적이고 소박하고 정통성 있는 것들이 쓸모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인터넷이 있기 전에 현지 스페인 타파스바에 가는 건 투우 경기와 알모도바르의 세계에 살짝 빠져보는 경험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민족국가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을 왜 밥 먹을 때만 되면 고집하는 걸까? 여하튼. 개인적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서로 완전히 똑같이 느껴질 때면 좀 묘하다. 물론 모든 개인적인 것이 바로 유통될 수 있는 상품으로 둔갑한 오늘의 사회에서 이상한 일은 전혀 아니지만 말이다.

그녀의 친구들도 나가고 싶은 걸까? 특별히 괴로워하는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래도 그녀가 물어보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도 원치 않았던 저녁 식사 자리에 있느라 모두가 고통받을 수도 있다. 또 대부분의 사람은 어차피 저녁을 먹으니까 별 대수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냥 저녁일 뿐이니까. 무슨 축하 파티도, 기념일도 아니고, 단순히 저녁이니까. 그녀는 편하게 앉았고, 척추와 등받이의 관계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정신은 그녀를 대신해서, 나란히 앉으면 ‘단순한’ 저녁이야말로 딱 맞는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맞은편은 조사이자 멈춰서서 하는 성찰의 시작이다. 나란히는 시야를 들어 올리는 것에 더 가깝다. 우리를 우리로 만드는 모든 성찰들의 연속과 받아들임.

에피소드 5

“나랑 걷자.”

“어디 가는데?”

“딱히 정한 건 없어. 왜 꼭 정해야 해, 그냥 걸을 수는 없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같이 걷자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왜? 네 곁에 있는 게 좋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해? 어디 가는지를 알면 알수록 네 곁에 있어서 좋다는 느낌이 희석되는걸.”

“그럼 애초에 왜 걸어,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좋겠네. 걷다 보면 결국 불평이랑 물집으로 가득 차서 즐거움은 다 사라질걸.”

“너는 물집이 잘 생기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 앉아 있어도 불평은 똑같이 할걸? 지금처럼 햇볕이 뜨거울 때는 더 그렇지.”

“내가 물집이랑 어떤 관계인지 알기나 해?”

“그거 말고도 냉장고나 핸드폰이나 그밖에 소소한 수많은 것들이 우리 대화에 끼어들 수 있고.”

“있잖아, 내 어린 시절은 끝없는 물집들의 연속이었어. 열 발가락이 맨날 물집으로 터졌지.

발꿈치도. 양쪽 다. 어떤 때는 엄마가 신발 끈을 너무 짝 묶어서 끈이 피부를 파고들었고

결국에는 또 물집이 잡혔어. 이제는 양발에 전부 굳은살이 박였는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매일

하이힐을 신었더니 엄청나게 커졌어. 이제 양말만 신어도 물집이 생겨. 젠장. 내 발은 그 물로

가득 찬 끔찍한 것들이랑 온갖 고통에 너무 많이 노출돼서, 걷자고 말한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래. 그럼 이제 가자.”

“가방만 가지고 올게. 반창고 챙겨야 해.”

“반창고는 왜?”

“혹시 모르니까. 사고가 생길 수도 있잖아. 반창고는 보험 같은 거니까. 아무 일도 없겠지만. 나쁜 운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막아주거든.”

그녀는 도대체 뭘 입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여행길에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았고 가져온 옷들은 깨끗하긴 했지만 백 번 대 케이블 채널에서 나오는 재방송처럼 느껴졌다. 안 그래도 그는 그녀가 뭐가 됐든 짐을 너무 많이 가져왔다고 불평하고 있었다. 덩치가 그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녀가 짐은 두 배로 가져왔다. 그중에서 다시 입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의 옷을 빌려 입을 수도 있었다. 허리가 너무 높고 벨트 스트랩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걸프렌드 진 같은 것 말이다. 그러기에는 허리가 맞지 않았다. 아마 그가 보면 한참을 웃고는, 눈을 굴리며, 그래그래, 맘대로 해, 잘나 보이고 싶은 기분이면 뭐든 빌려 가, 그렇게 말할 것이다.

수년 전, 그녀는 낯선 사람과 사랑을 나눈 적이 있었다. 특별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평범했다는 것이 아마 가장 적절한 표현일 테고, 그건 섹스인 동시에 또 완벽히 다른 무언가였다.

그녀의 신경은 모두 표면으로 몰렸고 필사적으로 민감했다. 그들은 처음이었지만 안전한 기분이

들었고 부드러운 전개 덕에 그녀는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절정에 올랐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간청했다. “안 돼… 제발… 더는 못 해. 더 하면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비자발적인 수축이

밀려들며 혈떡이는 숨 사이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오르가슴이 찾아왔다. 공동의 열기 속에서 그

절정은 그녀가 시트를 정신없이 긁어댈 때까지 이어졌다.

그녀는 그곳에 있었다. 질감, 무게, 손길. 그건 냇가에 앉아 물이 어둡게 반짝이는 것을 보는 것,

반사된 빛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그 순간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거나, 뭘 제공하거나 만족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안에 존재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느릿한 파도처럼 차분한 무관심이 그녀를 뒤덮었다. 아이였을 때의 기억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모든 압박과 혼란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 모든 것이 용해되어 사라졌고, 가쁜한

기분이 들었다. 몸이 어떤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 같았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녀가

아주 잘 아는 곳. 그곳은 화창하고 고요했고, 풀잎이 그녀를 둘러쌌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와 풀잎과 태양이 모두 하나가 된 것 같은, 같은 것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 그녀는 전체 중 일부였다. 전체의 흐름 속에 있었고, 그 안에, 그 바깥에, 뒤엎겨 같은 것이 되어갔다. 그녀가 도달한 곳은 풀밭, 흐르는 움직임...시냇물이나 강물, 어쩌면 키 높은 풀밭에서 파도치는 바람, 산들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의 반짝임, 우아하게 흐르는 구름. 그 후 그녀는 천천히 내려왔다. 그녀의 아우라를 쓰다듬는 손길 아래, 반복된 오르가슴에 지쳐 떨리는 엉덩이, 배, 허벅지의 근육이 서서히 식었다. 그녀는 베개 더미에 누워 살갗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아침이 되자 다른 몸의 흔적은 희미해져 있었다. 정사의 냄새나 브리짓 존스 특유의 성교 후 지저분한 머리는 없었다. 그녀의 몸은 차분했고, 피부는 투과성이 높아졌고, 기분은 가벼웠다. 이 경험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었고, 비인격적인 것들이 그 가벼움을 채웠다. 무적이 된 것 같은 느낌과 함께.

얼마나 멍때리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애써 휴대폰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발목 위까지 오는 짧은 바지를 입었다. 그녀는 몹시 매력적인, 두드러지는 발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숨은 자랑거리였고 에로틱한 상상을 할 때면 거의 언제나 등장했다.

그녀는 그 회상이 온종일 몸에 머무르게 내버려 두었다. 억지로 잡지도, 더 증폭시키지도 않고 저녁에 걸쳐 서서히 사라지도록 두었다. 그녀는 자기가 앞으로 한동안 에로틱한 것들을 멀리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다. 풀밭과 풀잎과 태양과 바람의 느낌에 더 오래 머무르기 위해서.

물론 걷는 것이 훨씬 나았다. 그들 중 누구도 자기 계급이나 지성을 뽐낼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대화는 편하게 흘렀다. 그들은 대부분 대화를 나누며 그냥 걸었다. 때로는 침묵이 찾아왔고, 무언가가 그들을 다시 궤도에 돌려놓기 전까지 긴 침묵이 이어질 때도 있었다. 조용한 환경이었고 방해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수월한 오후였다. 쇼핑이 그들 사이에 끼어들거나 흐름을 방해하는 법도 없었다. 압도적인 자연도 없었고 간혹 마주하게 되는 전망도 특별히 인상적이지 않았다. 그래도 커피는 한 잔 마셨다. 작기는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조그맣지는 않은 커피를 그들은 강퍽한 손가락으로 조금 오래 휘저었다.

때로는 나란히 걸었고, 때로는 근처 연못으로 향하는 두 마리 거위처럼 걸었다. 그녀는 나란히에서 앞뒤로 대형이 바뀔 때의 부드러운 흐름이나, 직관적으로 변화하는 그들 간의 거리가 대화란 모름지기 핏퐁처럼 오가야 한다는 관념을 지워낸다고 생각했다. 너무 작은 테이블에서 나누는 대화나, 모든 것을 정교하게 계산해서 자신의 의도를 숨기려고 하는 스타카토 리듬의 대화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이야기는 거리를 걸으면서도, 인도 위에서도 펼쳐질 수 있었고 몹시 사소한 디테일로 흠뻑 빠져들 수도 있었다. 상대방이 던진 맥락 없는 질문 덕에 더 정교한 관찰이 가능해질 수도 있고, 단순히 대화를 지속하거나 대화의 소유권을 조심스럽게 해체하기 위해 알지 못하는 영토에서 대화가 뱅글뱅글 돌 수도 있었다. 대화는 사적인 영역을 용해하는 방법, 일종의 공동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방법이다.

에피소드 6

처음 가는 도시에서는 어떤 역학이 발생한다. 처음 막 도착하면 걷는 것과 택시가 유일한 이동 수단처럼 느껴진다. 그녀는 운전을 못 했기 때문에 택시를 애용하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다. 대체로 택시를 탈만큼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그 서비스를 실컷 이용했다. 어쩌면 이게 암스테르담이 싫은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암스테르담에서는 (사실 암스테르담을 도시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또 마을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편안한데) 택시가 옵션이 아니다. 너무 비싸니까. 그녀는 첫날부터 예외 없이 그 형편없는 도시를 걸어서만 다녔다. 물론, 가끔은 트램을 타기도 했지만 그건 현지인이나 거의 현지인인 사람과 같이 있을 때였다. 한번은 매일 아침에 중앙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하는 호텔에 머무른 적이 있다. 그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싫었고 참고로 이 호텔은 디자인 호텔 같은 거였는데, 방이 지나치게 작았고 유리 칸막이로 샤워실과 나머지가 구분되어 있었다. 그 나머지가 뭐였건 간에. 또, 매일 아침 조식 뷔페에 가야 하는 건 몹시 굴욕적이었다. 물론 처음에는 너무 환상적으로 좋지만, 호텔 경영진들은 이미 숙박객들이 다 알아차렸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 걸까? 조식 뷔페가 돈이 더 적게 들지만, 더 비싸고 풍성해 보인다는 것을. 조식 식당은 가장 꼭대기 층에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호텔의 뷔페 담당 부서는 이곳에서 비즈니스호텔과는 어딘가 다른 사회적 맥락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좋지는 않았는데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모든 게 약간 끈적끈적해져 있었고 병에는 오렌지잼이 묻어 있었다.

처음 가는 도시에서는 택시비가 매일 쓰는 돈의 절반은 차지하는 것 같지만 택시 안에서는 삶이 안전하고, 여러 층위의 현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여정은 사라지고 목적지가 전부가 된다. 택시는 순간이동의 원시적인 버전인데 대신 따뜻하다. 그녀에게 순간이동은 어딘가 몹시 추운 경험처럼 느껴졌다. 우주를 통과한다니 정말 추울 것이다. 몸이 서로를 덥혀줄 수 없는 각각의 미세입자로 일시적으로 분해되는 것으로도 모자라 완전히 나체가 되어야 한다니. 그래서 순간이동하고 나서 몸을 다시 조립하고 나면 가장 먼저 따뜻한 차를 마시는 걸지도 모른다.

택시를 타면 여기와 저기만 있고 그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 반면에 걷기는, 특히 관광일 경우, 정반대다. 대부분 목적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도시를 탐험하면서 그때그때의 상황을 가이드 삼아 걷는다. 걸을 때는 조건이 반대가 되어 오직 여정만이 중요해진다. 지금 여기가 전부가 되고, 각각의 여기는 고유하지만, 그것들을 분간하는 일은 서서히 불가능해진다. 여기는 어디든 될 수 있고 묘하게 다 똑같다.

안전이나 목적지는 없지만, 여행자는 도시의 질감을 경험할 수 있고, 골목 술집에서 이야기를 엿들을 수도 있고, 쓰레기 냄새를 맡거나, 루이뷔통 가방을 주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싼 가격에 수많은 서비스를 원하는 사기꾼을 만날 수도 있다. 손님한테만 이 가격에 드리는 거라면서. 하지만 문제는 10 분 정도 지나면 모든 것이 똑같이 느껴지고 열의를 계속 갖기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가치를 느끼니까. 그래서 처음 가본 도시에서 보내는 둘째 날은 언제나 집보다도 좋다. 물론 첫날도 신나긴 하지만, 그래도.

걸어서는 절대 훌륭한 식당을 찾을 수 없다. 결국에는 이미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아는 것들을 조합해서 만든 약간 한심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음식에 관해서 만큼은 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보수적으로 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내가 먹은 게 알고 보니 닭발이었다거나, 맵소사, 내장이나 전통 피순대 같은 거면 어떡해. 마르게리타 피자나 햄버거나 치킨을 먹는 게 낫겠어.” 집에 있을 때는 실험적인 요리를 잔뜩 먹어놓고는, 메뉴를 읽을 수 없는 곳에만 가면 내면의 전통주의자가 기어나와 정상성에서 벗어난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한다.

잘 모르는 도시에서 비로소 그 질감의 일부가 되는 것은 버스를 탈 때다. 아니, 버스를 탈 때 그 도시는 더는 낯선 것이 아니게 된다. 그렇다고 이제 지하철도 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어떤 도시에서는 물론 그 순서가 반대인 경우도 있다. 이 순서는 언제나 명확하고 모호한 경우는 없다.

그녀는 어쩌면 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래 가사들을 좋아했다. 노래 가사가 불확신을 표현한다는 건 이상한 현상이지만, 어딘가 아주 평범할 정도로 아름다운 데가 있다. 그녀는 무엇이 두려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감각은 떠날 줄을 몰랐다.

마침내 새로운 도시에서 두려움 없이 버스에 올라탈 수 있게 되었을 때 경험하는 감정은 굉장히 강렬할 수 있다. 그녀에게 그것은 강력한 힘, 독립의 감각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여기서 힘은 권력이나 다른 사람에게 행사할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조차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힘. 축적하는 힘이나 자본의 힘은 독립과 병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힘은, 거래 계약에 서명한 적도 없는데, 독립을 감시나 편집증과 맞바꾸는 것이었다. 독립은 아무 수단도 동원하지 않고 힘을 갖는 것이었고, 그녀는 버스에 올라탔을 때 그런 힘을 느꼈다. 특히, 이번에 그녀는 일부러 전략적으로 이어폰을 껐고, 버스에 탑승하는 바로 그 순간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하우스 비트의 음악이 나왔다. 카푸치노를 연상시키는 하우스 음악.

버스는 텅 비어 있지도 않았지만, 꽉 찬 것도 분명 아니었다. 누군가 그녀를 밀치고 버스에서 내려야 하지도 않았고, 그녀가 그 나라 말이 아닌 언어로 사과해야 하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느꼈던 힘의 감각은 온전히 유지되었다. 그녀는 버스 뒤를 향해 걸어갔지만, 앞의 도로는 활짝 뚫려 있었고 미래는 벌거벗은 채 그녀 앞에 놓였다. 역설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힘이 있었고 일정한 카푸치노 비트가 나왔으니까. 어쩌면 (노래 가사의 어쩌면 말고) 그녀가 느낀 독립의 감각은 아무도 아닌 느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느낌과 연결되는 것 같았다. 익명이 되는 것, 그렇다고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재현되지 않는, 군중의 일부가 되지 않는 감각.

파란색 시트가 씌워진 좌석에 앉았다. 여러 종류의 파란색이 뒤섞여 있었는데, 모든 걸 좋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디자인된 거로 생각했을 거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적어도 오늘은. 참 이상하게도 어딜 가나 버스와 지하철 좌석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들만 빼면, 언제나 디자인이 이상하고 너무 많은 색깔과 채도가 뒤섞여 있다. 아마 그 불규칙한 패턴이 오염물을 가려주기 때문일 것이다.

숨을 들이마시며 그녀는 익명성과 자주성은 교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말 그럴까? 관계가 형성되는 방식에는 약간의 트위스트가 있다. 서구 사회에서 자주성은 자유주의와 같은 의미다. 사람들이 자주성이라고 할 때, 그건 결코 진짜 자주성이 아니거나 온전한 자주성이 아니고

언제나 권력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자주 국가라는 말처럼 자주성이라는 개념에는 혼선이 있다. 자주적이라면 자체적인 규칙과, 어쩌면 통화 시스템과, 당연히 국경이 있어야 하지만, 그럼으로써 언제나 다른 무언가와 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 그건 반응으로서의 자주성이다. ‘저거 싫어’로서의 자주성. 미국의 ‘사유지 출입 금지’ 같은 것. 이런 자주성이 어떻게 독립성과 같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자주성은 위선적이다. 주변이 친절하고 우리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때만 성립되는 자주성. 이런 자주성은 파괴하거나, 정복하거나,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을 되레 끌어들이는 점에서 일종의 가미카제와도 같다. 바깥을 향해 ‘저건 적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역으로 뭔가 이곳에 침략하거나, 정복하거나, 훔칠 것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익명성은 그렇지 않다. 익명성은, 적어도 그녀의 익명성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를 갖지 않는 것이다. 아무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정복될 수 없는 것. 거의 평행우주처럼, 우리 곁에서 함께 걷고 있는데 우리는 그 존재조차 모르는. 진짜 독립성은 그 어떤 것도 잃을 것이 없다는 의미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자기 자신도 이미 소유물의 한 형태이니까.

이건 정확히 그녀가 그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경험했던 것이었다.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 초원에서, 풀밭에, 태양과 바람 속에 몸을 뉘었던 때 말이다. 그 순간 그녀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고, 익명적인 그 모든 것이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아니,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이 영원히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변화라고 하기에는 더 지독하고 더 끔찍했다.

그녀는 서핑을 떠올렸다. 한 친구는 서핑 보드 위에서 처음으로 일어서는 순간은 모든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는 경험이라고 말했다. 불가능한 무언가의 일부가 되었다는 절대적인 가속과 깨달음. 완벽하게 비이성적인 무언가의 일부.

서퍼들은 남은 일생 그 불가능성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 파도를 쫓는다. 서퍼들이 다음 파도를 기다리며 앉아 있을 때, 그들은 그 순간을 애도하고 있는 것, 그 경험을 영원히 다시 하지 못할 것이라는 깨달음을 유예하는 것이다.

그녀도 저 나뭇잎의 서퍼가 된 것일까.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풀밭, 태양, 바람과 하나 되었던 그 감각을 애도하는 것일까. 그 모든 것이 함께이자 하나였기 때문에, 그녀가 풀이고 풀이 그녀였고, 그 모든 것이 동시에, 영원히 전체 그 자체였기 때문에?

갑자기 패닉이 찾아와 그녀는 그 낯선 사람이 사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녀는 저주받았고, 상실의 감각을 평생 지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내면이 텅 빈 채로 계속해서 살아야 할지도. 비었다는 건 유리잔이 비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까, 아니면 텅 빔으로 가득 찬? 그건 너무 존재론적인 얘기였고, 그래서 그녀는 그냥 버스 타는 것에 집중했다. 버스가 몇 번이나 정류장에 멈췄는지 알 수 없는 채로. 이 멈춤들은, 어쩌면, 정지가 아니라, 휴지, 계속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유예의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에피소드 7

그녀는 언제나 한참 후가 되어서야 일기장을 집어 들었다. 그건 언제나 새로운 도시에서 싫증을

느낄 때쯤이었다. 일기장을 드는 순간은 도시가 더는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과 일치한다. 어제 일이 되어 버린 새로움의 멜랑콜리와 때가 맞지 않는 일기 쓰기의 시간이 같이 흐른다. 시간을 정반대로 이해하는, 매일매일의 두 가지 글쓰기 실천.

도시는 진부함에 갇혀 버려도 적어도 일기장은 활성화된다는 것이 조금 슬프거나 안타까운지 아니면 긍정적인지 알 수 없다. 그녀는 일기를 매일 펼쳐보지 않고 주기적으로 쓰는 것은 더욱 아니다. 적어도 좋은 습관처럼 주기적으로 쓰지는 않았다. 그녀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일어나고, 오줌을 누고, 이를 닦는 것밖에는 없고 나머지는 늘 유동적이다. 어떤 때는 시계처럼 규칙적이다가도 갑자기 미끄러지고, 잊어버리고, 잊어버린 게 뭐였는지도 모르게 된다. 그녀는 때로는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매일 같은 신문을 읽고, 똑같은 요가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어딘가 웅졸하게 느껴졌다. 더 나은 일이 그렇게도 없나, 아니면 환상이나 상상 능력이 아예 없는 것일까? 환상과 상상은 서로 다른 것일까. 그건 언제나 둘이었나 아니면 하나였나? 그녀는 방향을 거꾸로 돌려 자기의 번덕스러운 입맛이나, 시류를 따라잡지 못하는 무능력, 피상적인 욕구에 자신을 내맡기지 못하는 것, 삶에 조금의 평범한 일관성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니저러니 해도 자기의 그런 무능력들이 좋았다. 그런 쪽으로 문제가 있는 게 그 반대보다 훨씬 나았다. 일탈의 여지가 전혀 없는 헌신, 즉흥이 전혀 불가능한 고집. 그런 사람들은 정말 졸렬한 연인일 것이다. 수년간 한 연인에서 다음 연인으로 옮겨가며 그 행위에서 엑기스만 남도록 최적화하는 사람들. 더 별로인 것은 대단히 민첩하긴 하지만 가장 좋을 때 즉흥적으로 놓아 버리거나 이유 없이 갑자기 웃지는 못하는 사람. 아마 이런 부류의 변태성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을 것이다. 그녀는 혼자 웃으며, 분명 이런 변태성이 섹스나 인생 전반에서 낮은 자존감을 만들어내는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성적 파트너가 표현하는 그 어떤 변칙이나 실망이나 의심이나 그 비슷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 그녀는 자신의 끔찍한 정신분석학적 능력에 감탄했고 본인의 개판인 성생활에 대해 생각했다. 적어도 이 재난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다. 누가 뭐래도 즉흥성과 놓아 버리는 것은 그녀가 지닌 유일한 에로틱한 재능이었으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벌써 세 번째로 그녀의 머릿속에는 초원과 풀밭과 태양과 바람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걸 즐겼고, 잠시 멈춰서서 서서히 사라지는 쾌감으로 진동하는 몸, 좋은 태풍이 지나간 뒤 바다의 굴처럼 서서히 닫혔던 섹스의 기억을 흡수했다. 그리고는 이 이야기는 반드시 수정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스스로 실망했다. 왜 여성의 욕망이나 섹슈얼리티를 다른 사람이 그녀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클리셰에 굴복한 것일까? 무슨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녀에게 쾌락을 선물해준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감각, 쾌락, 몸, 절정의 주인이었다. 그날 밤은 대단히 좋았고, 심지어는 보름달이 떴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초자연적인 것은 전혀 없었고, 그저 두 몸과 두 정신이 어느 유예된 한순간 함께 했을 뿐이다.

유혹을 느끼긴 했지만, 이 이야기는 일기장에 쓰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그 어떤 곳에도,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한 적도 없었다. 한 적 있나? 육체적인 부분 때문이 아니었다. 상대방이 누군지 밝히지 않겠다는 도덕적인 결심도 아니었다. 어차피 그 사람 이름은 알지도, 기억하지도 못했다. 초원과 풀밭과 태양과 바람과 그곳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었다. 그녀의 안식처에 관해서는 써서도, 이야기해서도 안 됐다. 누군가와 공유하는 순간 그것을

빠앗길까 봐 두려웠다. 그녀의 것이어서가 아니라 정확히 그 반대였다. 그녀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밀로 남겨져야 했다. 그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너무도 공공적이고 열린 것이어서. 그것을 누군가와 공유한다는 것은 그 무조건성에 상처입히는 것이었다.

솔직히, 그건 비밀이 아니었다. 뭔가 다른 거였다. 비밀은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간직하는 것이다. 초원과 풀밭과 태양과 바람은 그 반대였다. 비밀은 윤리와 관련되어 있고, 윤리는 뭔가를 나누는 것이다. 우리만의 비밀. 저들은 참여할 수 없는 우리의 비밀. 하지만 그녀의 인식처는 그냥 장소일 뿐이었고, 정확히 윤리가 부재했기 때문에 장소로 머물 수 있었다. 이런 장소도, 저런 장소도 아니었고 그냥 장소 그 자체. 그리고 그것은 나눌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초원과 풀밭과 태양과 바람에서 혼자였지만, 동시에, 그 일부가 아니라 그 자체였고, 초원과 풀밭과 태양과 바람이 그녀였으며, 그 모든 것은 동시에 전체였다. 비밀은 혼자서는 가질 수 없다. ‘이건 내 비밀이야’라는 말은 혼자가 아니라 어떤 형태든 다른 무언가와 관계 속에서만 성립한다. 비밀이 비밀이 되려면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한다. 비밀은 두 명으로도 부족하다. 세 번째 사람이 그 비밀의 존재를 증언해줄 수 있어야 한다. 보초병처럼. 세 번째 사람은 그 비밀이 뭔지 알아서는 안 되지만, 자신이 참여하지 않는 그 비밀의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어느 한순간, 그 버스에서, 그녀는 눈을 감고 최근 느꼈던 손길들, 그리고 그렇게 가깝지 않은 과거의 손길들을 떠올렸다. 미래의 손길도 느꼈다. 그녀는 다시 눈을 떴을 때 뭔가 다른 단어들이 종이 위로 기어나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긴 겨울잠을 자고 나서 게슴츠레 땅 위로 올라온 설치류처럼 부드럽게 모습을 드러냈으면 좋겠다고.

새 공책은 아니었다. 전혀 아니었다. 일기장이었고 이미 예전에 그 안에 꼬적였던 것들이 있었다. 일기장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쓴다거나 표지나 끝에 뭔가 특별한 것을 적는 것은 아니었지만, 결코 여백에 낙서하는 법은 없었다. 자기의 부족한 상상력이나 글쓰기 실력, 혹은 게으름을 아무 그림으로나 대신 채우지는 않았다. 그녀는 공책이나 종이에 아무거나 꼬적대는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는 자기 자신을 평가했다. 초에 녹은 찻농 가지고 노는 사람들도 똑같지 않나? 그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어느 여자 친구가 신비로워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다. 어떤 남자한테 관심이 있으면 그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숫자를 13 까지 세라고. 더 오래 셀수록 더 신비롭게 느껴질 거라고 했다. 그녀를 더 원하게 될 거라고. 그 말을 따라서 23 까지 센 적이 있었는데 결국 그 남자랑 잤는지 어쨌는지는 잊어버렸다. 숫자를 셀 때, 그 친구는 말했다,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꼬아. 그녀는 눈을 떴고 단어들은 나오지 않았다.

여행할 때는 일기가 그럭저럭 흥미로운 기록들의 저장고가 되기 쉽다.

“오늘은 아크로폴리스까지 걸어 올라갔는데, 도착했을 때 너무 지쳐서 전망을 즐길 수가 없었다. 신전이 더 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이런 습관은 디지털 사진의 등장으로 폐기되었을지도 모른다. 오늘날 글쓰기는 한 사람이 겪는 모험이나 삶을 기록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방법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지를 사용하고, 대체로는 너무 많이 사용한다. 그녀는 그럭저럭 괜찮은 디지털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된 이래 이미지의 가치가 바뀌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사진이 아날로그였을 때, 그것은 버튼을 누르는 일이었다. 자 거기 서 봐, 아주 좋아, 아 망했네. 그때는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경제적인 선택이었다. 인화를 안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오늘날 카메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말하자면 사진을 더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카메라는 더 저렴해진다. 고로, 돈을 아끼려면 계속해서 버튼을 눌러라. 기억이 이만큼이나 사진으로 보관되고 기록된다는 건 비극이다. 기억을 글로 남길 때 우리는 이미지를 생성한다. 사진이 아니라 이미지. 그리고 이 이미지들은 그 사건을 찍은 사진보다 훨씬 거대하다. 훨씬 더, 훨씬 훨씬 더 거대하다. 몇 년 지나고 혹시 그때의 기억이 다시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그에 관해 다시 글을 쓸 수도 있다. 그러면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관점이 포착되고, 다른 층위들이 펼쳐진다. 사진은 상상력에는 안 좋은 소식이다. 사진, 특히 개인적으로 찍은 스냅 사진은, 너무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꿈꾸는 법을 잊어버려 진짜 어땠는지를 포착하지 못한다. 여행에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경험과 모험과 실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최근에 한 전시에서 본 사진 이미지가 떠올랐다. 벌거벗은 여성의 모습이었고, 저속하지 않게 그녀 몸의 전면을 보여주는 누드 사진이었다. 양 젖꼭지와 음모가 모두 카메라에 보였지만 구도가 살짝 대각선이어서 엉덩이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느껴지기만 하고 보이지는 않았다. 그녀는 배 앞에, 곧 얼굴로 들어 올릴 것처럼,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긴 렌즈가 달린 (빈티지가 아니라) 현대적인 카메라였는데, 그녀는 전문가의 태도로 그걸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 벗은 몸이 카메라로 보호받고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누드 초상화와 이미지가 내재하고 있는 힘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보는 사람이 이미지 속 여성에게 표현하는 힘. 상대를 볼 수 있는 힘을 통해 상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소유할 수 있다는 것. 이 이미지에서 누드 신체가 손에 든 카메라는 무기다. 그녀에게는 보는 사람의 힘을 기록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보는 이의 응시가 갖는 폭력성을 드러낼 수 있는 역능이 있었다.

이 이미지의 여러 층위를 떠올리며 그 모든 걸 일기장에 적었다. 사진작가가 누구였는지, 여성이었는지 남성이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 난관에 부딪혔다. 만약에 사진작가가 여성이었다면 다르게 기억했을까, 아니면 여성 사진작가라서 잊은 걸까? 그가 멀린 뒤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다 뒤마는 화가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에게 카메라가 등장하는 페인팅은 그다지 흥미롭지 않았다.

에피소드 8

그녀는 예술에 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특히 새로운 도시에서는, 버스에 타면 창문 밖을 봐야 한다. 확실히 예술이나 예술가에 대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건 일종의 경험 법칙이다. 일기장에는 예술 얘기 금지. 그녀는 방금 그 법칙을 어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구 어겼다. 일기장에서는 법칙을 위반하기 쉬운데, 어쩌면 그런 위반이야말로 흰 종이 위 줄들이 생각과 인상을 통제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왜 꼭 뭔가를 떠올리거나,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일기를 써야 한단 말인가? 그녀의 출발점은 반대였다. 그녀는 인상, 도시, 사람들, 만남을 뭔가 그 이상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발생한 일을 확장하기 위해 일기를 썼다. 그 사건들을 의식으로, 더 중요하게는 무의식으로 여과했다. 종이에 얹힌 단어들이 그 자체로 고유한 경험이 될

때까지 색을 칠하고 다른 경험, 인상, 성찰, 사건, 사고와 리믹스했다. 자주적인 형식이 될 때까지. 만약에 일기가 뭔가를 입증하기 위해 쓰는 것이라면 얼마나 꼼꼼하게 지루할까. “실로, 8 월의 24 일이었다”라거나 “정정해야겠다. 그날에는 분명 비가 왔다”라거나. 좋건 싫건 일기는 문학이고, 가장 강박적으로 중립을 표방하는 사람이나 진실한 증인에게도 일기는 픽션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10 대에는 그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뭔가를 극복하기 위해 일기를 쓰는데, 그녀는 미국에서 특히 그런다고 생각했다. 새아빠가 참을 수 없이 싫다거나 케빈한테 차인 이후로 더는 살고 싶지 않다거나 하는, 십 대 딸이 쓸법한 영화적인 일기 말이다. 극복 메커니즘이 되레 그 사람이 완전히 소시오패스라는 증거로 둔갑하는. 오늘날에는 이야기가 좀 다르다. 수 세기 동안 일기장에 등장했던 내용들이 이제는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에 각종 음모론의 형태로 올라온다. 불특정한 고함과 둠 메탈이 배경음악으로 깔리는.

다른 곳에서는 일기 쓰기가 장롱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일기를 뭔가를 기억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 에피소드, 사건에 더는 몰두하지 않아도 되게 자신을 해방하기 위해 쓰는 것.

그녀는 모든 측면에서 자기 글쓰기에 확신이 없었고, 그녀가 끄적이는 글이 자기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내다 버리는 쓰레기장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일기장은 망각을 위한 기계다, 그녀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 기계는 주인이 돌아올 때마다 약간 실망한다.

제대로 잊지 못했다는 증거. 그녀는 이런 문장에 매혹을 느끼지 않기 어려웠다. 문장 구성이 좋아서라거나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내용 때문에. 당연히 잊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잊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야 한다. 내가 어떤 기억을 치워버렸다는 것을 아는 이상, 그것은 여전히 매일 매일 곁에 존재한다. 어떤 협회의 수동적인 구성원처럼, 열정이 식은 지지자처럼. 좀 웃기지 않나, 그녀는 자문했다.

그녀에게 일기는 여러 규칙에 따라 조직되어야 했다. 그런 규칙이 없다면 애초에 쓰지도 않았을 거다. 규칙 없이 쓰는 건 너무 큰 부담이었다. 대체 어디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 규칙들이 만들어내는 제약 덕에 그녀 자신에게도 소유되지 않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규칙은 그녀를 자의식으로부터 해방해줬다.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속박되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해방으로서의 자유였다. 일기는 그녀의 글쓰기를 구속했다. 좀 과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녀가 만약에 소설을 출판해야 한다면. 아마 필명을 썼을 것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나 마르그리트 뒤라스 같은. 문학 스타 뒤에 익명으로 숨는 편이 아주 신중하게 고른 랜덤한 이름보다 훨씬 더 재밌다.

편집자를 설득하기는 힘들겠지만.

절대 쓸 일이 없는 소설에서 그녀는 어떤 거래를 제안받은 죄수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을 등장시킬 것이다.

리버티와 프리덤은 서로 완전히 다른 자유 개념이다. 일기 쓰기는 그녀에게 리버티를 선사한 것이 아니라, 프리덤을 준 것이었다. 그녀의 리버티를 사실상 모두 앗아갔기에 얻을 수 있는 프리덤이었다. 두 단어를 구분해서 쓰지 않는 언어는 좀 불편하다. 예를 들면 독일어나 프랑스어. 문제는 둘 중에 어떤 쪽이 없는 게 더 괴로울까? 프랑스어로는 프리덤과 리버티가 모두 리버티로

번역되고 거꾸로 독일어에는 프리덤밖에 없다. 고달픈 삶이다.

수년 전, 그녀가 아직 하이힐을 신던 시절, 한 세미나에서 잠재적인 목적지가 없는 글쓰기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글쓰기는 언제나 독자를 상정하니까. 즉, 글은 언제나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 다른 누군가가 설사 자기 자신이더라도. 글을 쓰는 나와 글을 읽는 나는 서로 다른 사람이다. 동시에 두 장소에 있는 느낌인 걸,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에게 이 주장은 명확했다. 독자 없이 글을 쓴다면, 끼적대는 것 이상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글쓴이만 이해하면 된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의미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랜덤한 곡선이나, 선, 점, 동그라미 같은 것으로도 충분하다.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녀는 생각했다, 글쓴이와 독자는 서로 교체될 수 있다는 귀결에 도달할 것이고, 어쩌면 정신 분열을 진단받게 될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신이 꽤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사는 사람임을 알았다. 일기장이나 공책이 너무 깔끔한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다. 까만색 가죽 양장이 된 공책이 책장에 나란히 꽂혀 있는 사람도. 중간을 펼쳤는데 찍 그어진 단어도 없고, 틀린 철자도 하나도 없는 사람. 공책에 모든 그림과 다이어그램과 스케치가 완벽하게 깔끔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사람.

그건 아주 깊게 내재된 낮은 자존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그 심연이 너무도 깊어서 왠지 그 사람을 잠깐 붙들고 힘내라고 말해줘야 할 것만 같은. 아니면 정확히 반대의 사람일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강한 일념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에 자신의 일기장이나 공책이 대중 앞에 공개되고 우주 전체의 학자, 공룡, 박물관 관람객이 그걸 보며 감탄하게 될 거라는 데에 한 치도 의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좀 무서운데,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에게 일기란, 설사 완벽하게 방향성을 갖지 않는 글쓰기가 불가능하더라도, 규칙과 규정이 있는 것이었고, 그녀에게 그런 제약으로부터 빠져나와 글을 쓰게 만드는 도전이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과제는 글을 쓰는 것, 독자도 방향성도 없는 듯이 확신을 가지고 쓰는 것, 하지만 글쓰기의 정확성을 잃지 않으면서 쓰는 것.

생각에 너무 깊게 사로잡힌 나머지, 그녀는 내면의 풍경으로부터 잠시 빠져나왔다. 한순간 그녀는 자기가 도대체 어느 세상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머리가 양쪽으로 깜빡이며 시야를 고정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한다고 긴급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좌표 위에 점 찍을 수 있는 기호든 뭐든 찾아야 한다고. 매달릴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기 직전, 어느 찰나의 순간, 그녀는 정체성이 흐릿해지는 것을 경험했고 머리가 쭈뼛 서는 패닉이 찾아왔다. 가슴에 텅 빈 공백이 점점 커지면서,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정체성이 꽤 빠른 속도로 용해된다는 것을 경험했다. 그녀는 사라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다. 그 마지막 순간, 자기 존재를 좌표로 고정할 수 있는 사건들을 발견했고, 다시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후 뭔가가 그녀의 몸에 남았다. 일기에 집중해 본 결과, 한 사람, 동물, 심지어는 사물의 정체성은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독자나 관객을 상정하며 방향성을 가진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고, 그녀는 이 발견에 실망했다. 관객에게 의존할 뿐만 아니라, 독자가 없으면 무조건적으로 순식간에 소멸해 버린다.

에피소드 9

그녀는 버스 통로 건너편 창문 밖을 내다봤다. 글쓰기가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 독자를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 언어는 서비스나 도구가(물론 엄청 복잡한 도구이겠지만) 되는 게 아닐까? 적어도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럴 것이고, 읽는 사람에게는 아마? 그녀는 짜증이 났다. 아마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는 뭔가가 분명해졌다. 인간은 정체성을 유지하고 흔히 말하듯 삶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언어에 의존하지만, 필요에 따라 언어를 도구로 쓴다는 점에서 언어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상정한다.

창문 바깥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은 그와는 다른 추동을 만들어냈다. 버스는 도시의 녹지대를 지나고 있었다. 공원 같은 곳이었다. 나무를 스쳐 지나가면서 그 전과는 다른 관점이 생겨났다. 한 인간의 삶은 더는 할 말이 없어질 때 끝나는 것일까? 삶은 구간이 아니다. 여기서 저기까지의 구간이나 도로에 그어진 선이 아니다. 삶이 계속 계속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면 어떨까. 매번의 지나감이 크건 작건 이 세계를 향한 한 사람의 발화이자 제안이라면. 모든 내뱉는 말과 외침이 스쳐 지나감이고, 모든 시작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면. 전진하는 움직임을 통해 다시 스쳐 지나감의 벡터로 돌아오는 것이라면. 그리고 더는 시작이 불가능해지는 때가 오면, 바로 이 돌아오는 움직임은 정지하고 삶은 용해된다.

다중의 중첩된, 그러나 양립할 수 없는 시간들이 허용되는 삶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 좋겠다. 삶을 어떤 직선이나 구간으로 이해하는 것, 시간을 뚫고 날아가는 되돌릴 수 없는 화살로 이해하는 것은 어딘가 처참한 이미지다. 침대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노인들은 외롭고, 세대 간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게 당연하다. 하나로 동질화된 시간에 삶이 얹매일 수밖에 없으니까. 삶을 뭔가 순환하는 것, 도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녀는 약간 오그라들며 이 생각을 수정했다. 전형적인 전생 얘기나,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나, 맵소사, 끈 이론 같은 것을 말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 이건, 그녀 생각에는, 전적으로 한 개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였다. 스쳐 지나간다는 것은 하나에서 다음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동시에 서로 다른 속도와 방향성을 가진 여러 스침을 말한다.

일기를 쓸 때 그녀가 시도하는 것은 (전략까지는 아니지만) 생존하기 위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혹은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그녀의 능력을 훔쳐 가도록 허용하는 것, 즉 언어가 그녀의 글쓰기 역량(그녀가 아니고)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언어를 자기 걸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른바 창의적 글쓰기 수업들은 모두 헛소리라고 생각했다. 좋은 글이 나오는 건 작가가 언어를 (당연히 자신의 언어를) 소유했을 때, 글에 작가의 서명이 새겨져 있을 때, 글이 사유화되었을 때라는 말.

그녀가 원하는 것은 정반대였다. 그녀는 글을 쓰면서 소유권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글쓰기와 평행하게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잊기를 바랐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밖이 어두워졌을 때. 즐거워서 잠시 자기 자신을 잊을 때 시간은 쏠살같이 흐른다. 글쓰기에 빠져들어 자기 자신을 잊을 때. 정체성이 용해되고, 더는 분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글쓰기에 이끌려 가도 괜찮다는 허락.

글은 쓰는 동시에 쓰인다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자아와 방향성을 내려놓고, 익명적인, 하지만 동시에 자율적인 글쓰기를 하는 것. 거기서 떠오르는 것은 재료이지 의미가 아니다. 공범의 익명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다시 창문과 그 너머의 바깥을 보기 시작했다. 창문 그 자체는 대단히 흥미롭지 않았지만 그래도 쉽게 넘겨봐서는 안 됐다. 프레임과 유리창을 연결하는 실리콘은 낡아서 말라 갈라지고 있었다. 그 검은 플라스틱에 남은 시간의 흔적과 다른 세기에서 온 그림의 페인트 균열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시간의 균열과 아우라의 물리적인 증거로 남은 균열. 아우라나 진본성의 인상을 만들어내는 균열.

십대들이 유리창 표면을 긁어서 낙서해 놓았다. 날카로운 물건으로 구멍을 뚫다. 그건 길과 도로가 한데 모여 가끔은 도시의 형태를 만드는 지도처럼 보였다. 지식과 비슷한 질감이었다. 규칙과 관습을 의미하는 글자와 구멍, 통과하려면 압력을 가해야 할 정도의 장애물처럼 굳어진 지식.

알루미늄 프레임에는 지금까지 그걸 거쳐 간 것들이 남긴 흔적이 가득 있었고, 그래서 평범하고 그다지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담은 백과사전처럼 보였다. 처음부터 광이나 윤이 나는 표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난 상처들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전달했다. 조화로운 전체 중 일부처럼 보였고, 그로부터 어떤 특별한 운명이 펼쳐질 것 같았다.

그녀는 프레임을 좋아했다. 경제적, 윤리적, 상징적인 프레임보다는 물리적인 프레임을 좋아했지만, 오늘날 이 세상에서 프레임은 포장지보다 나을 것이 없는 것으로 격하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사는 세계에서 포장은 상당히 저속한 것이었다. 그녀는 포장이 가치를 잃었다는 것이 상당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했다. 포장은 결코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는 전문 영역이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 구매한 물건을 그 자리에서 포장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건 더더욱 아니었다. 포장은 아주 섬세한 문제이고, 내용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포장의 역할은 때로는 뭔가를 숨기거나, 심지어는 일종의 익명성을 생성하는 것이다. 그녀는 너무 젊었고 세계의 잘못된 부분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소박한 소포가 뭔지 경험하지 못했다. 무심한 갈색 종이로 포장된 소포나 선물은 몹시 사랑스럽다. 종이의 색깔이나 패턴이 그 물건을 싸는 포장 방법이나 포장 기술에 종속될 때.

정확히 그 기억이 어떻게 떠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책인지 작은 직사각형 박스인지 모를 무언가를 싼 포장 종이를 아주 천천히 검지로 쓸어내렸던 경험에 몰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게 뭐였는지, 종이가 무슨 색깔이었는지, 무슨 상황이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났다. 그저 손가락 끝에 남은 물리적인 감각이 떠올랐다. 관습적인 의미에서의 기억이 아니었다. 그 경험을 실제로 다시 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손가락에서 그 경험이 다시 발생했고, 겹친 종이 층들이 피부로 만져질 듯 미세한 느낌을 자아냈다.

속삭이는 듯 미세했지만, 압도적인 감각이었다.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감각은 목을 타고 올라가 진동했다. 이 경험은 목으로부터 뻗어나가 그녀가 있는 공간 전체로 퍼졌다. 손가락 끝의 연결을 통해 공간 전체를 느낄 수 있는 것만 같았고, 그녀 안에 있는 에너지를 통해 증폭되었다. 그녀를 둘러싼 공간이 손가락 피부의 주름 속에 존재했고, 동시에 직사각형 박스를 포장하고 있는 종이의 질감이 주는 감각과 중첩되면서 방은 어느덧 만질 수 있는 것이 되었다.

그녀가 있는 곳은 예전에도 머물렀던 곳인데, 그녀의 방은 아니었고 그 방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사는지도 몰랐다. 벽은 흰색이었고 바닥은 싸구려 목재였다. 장롱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너무 작게 열려 있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한 명, 때때로 방문하는 손님을 위한 방이었기 때문에 침대는 퀸사이즈였다. 침대보는 캐주얼했다. 외로움이 살짝 배인 가벼운 에너지를 풍겼다. 오래전부터 그 침대에서는 한 사람만 잤지만, 옷을 입고 자는 경우는 없었다. 늘 벗고 잤다. 때로는 속옷을 입기도 했지만, 티셔츠를 입고 잠든 적은 없었다. 매일 매일 그 침대에서 한 사람이 홀로 눈을 감았고, 아침이 되면 다시 눈을 떴다. 새로 맞이한 하루를 공유할 사람 없이 홀로. 그곳에서 잔 것이 그녀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그녀였을 수도 있고 동시에 아니었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녀가 그녀인 동시에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절박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있으면 누군가 함께 할 사람을 찾고 싶어졌다. 발코니 문은 밀어서 여는 유리 패널이었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졌다. 창문이 커서 방 안은 밝았고 약간 취약하게 느껴질 정도였지만, 왠지 그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그 노출된 감각은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지 바깥으로부터의 침입자나 원치 않는 시선이 아니었다. 에어컨에 연결된 전선이 플러그에 연결되지 않은 채 벽에 늘어져 있었다. 여름도 겨울도 아니고 에어컨이 필요 없는 계절이라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잠시 후 그녀는 직사각형 소포를 양손으로 집어 들었고 두 엄지가 평행하게 나란히 놓였다. 종이의 질감은 더욱더 만져질 듯 생생했다. 그 감각은 피부에서 엄지를 통과해 손목까지 퍼지는 동안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의 존재감을 가졌다. 손목에서 느껴지는 종이의 거친 질감은 손이 사라지고 팔로 연결되는 바로 그 지점에 맴돌고 있는 에로틱할 정도의 관능과 뒤섞였다. 그녀는 이제서야 종이가 초록색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소 짙은 담녹색이 손바닥의 오렌지빛 감각에 스며들었다. 그 에너지는 그녀의 가슴뼈로 이어지며 그곳에 자리 잡은 초록빛 기운과 공명했고, 이 초록빛은 손목과 흉곽의 에로틱한 질감과 뒤섞이자 조금 밝아졌다. 그리고는 비록 해부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왼쪽과 오른쪽 각각에 있는 심장으로 이어졌다. 종이의 질감, 감각은 종이에서 출발해 엄지 끝을 지나, 심장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녀의 심장은 방향성이 없는 사랑의 감각으로 가득 찼다.

포장은 그냥 뭔가를 덮거나 묶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다. 형식과 내용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독특한 경험이다. 그 형식은 평범해야 하고, 포장의 포장으로 남기 위해서는 절대 인상적이거나 화려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자체로 '뭔가'가 되어 버리니까. 더는 포장의 아니게 되어 버리니까. 그녀는 포장과 자율성이 대립된다고 생각했다. 포장은 일기의 반대인 동시에

특수하고, 규칙에 참여함으로써 만들어진다. 포장은 결코 원가로 발전되어서는 안 된다. 서사를 피해야 하고, 이야기를 들려줄 수 없다. 포장으로 남기 위해서 그것은 내용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그녀는 포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그것은 '무엇'이 되기 어려웠다. '무엇'은 언제나 이 세계를 향해 뭔가를 표현하니까. 그렇다고 포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다. 부재가 아니다. 부재를 통해 존재한다는 말이 있던가? 포장은 거꾸로다. 포장은 존재를 통해 부재한다. 포장은 존재하지만, 방향성을 갖지 않는다. 회한하지, 그녀는 생각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포장은 존재를 통해 부재함으로써 일종의 자율성을 제시한다. 특이하게도 아무것도 보호할 필요가 없는 자율성.

그녀는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포장에 그녀가 바라는 바를 투사하고,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포장 개념을 가져온 건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았다.

그녀는 창문을 잠시 잊고 있었고, 창문 밖을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했다. 버스는 녹지대를 벗어나 공기관이 많은 지역을 통과하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 그녀는 줄줄이 늘어선 창문들을 봤다. 그녀의 창문은 움직이고 있었고, 그 너머에 있는 건물의 창문도, 물론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긴 했지만, 그래도 움직이고 있었다. 시야로 하나씩 스쳐 지나가며 연속적인 흐름을 형성했다. 그것들은 몸의 분자 같았다. 수없이 많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의 전체로 경험되는 몸의 분자.

창문은 설탕처럼 녹지 않는다. 그다음 건물은 유리 파사드가 건물을 둘러싸고 있었고, 빛을 반사하지 않는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어냈다. 어쩌면 날씨가 젖빛이어서 그렇게 보였는지도 모른다. 그 건물에 이르러 그녀의 경험이 바뀌었다. 분리된 전체였던 것이, 이제는 공간으로 뿔어나가긴 하지만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는 원가로 교체되고 있었다. 줄줄이 늘어선 창문의 규칙성은, 그 안에 상자처럼 사무 공간들이 들어차 있다는 것을 암시하긴 했지만, 보다 보면 신났다. 아마도 창문과 창문 사이에,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작은 틈들이 있었고, 세포와 세포 사이의 조직 같은 질감이 있었고 이곳에서 뭔가 장난스러운 행동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숨지 않아도 숨을 수 있는 공간. 이에 비해 표면이 거대한 패널 하나로 이루어진 매끄러운 건물은 대칭을 시사했다. 그런 건물에는 나란히 놓인 사무실 상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풍경이 펼쳐졌다. 첫 번째 건물은 구획을 말했다면, 두 번째 건물은 더 민주적이고 열린 상황, 닫힌 문이 없기 때문에 수평적인 감각을 수호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위를 올려다보았고 하늘을 보려면 몸을 앞으로 내밀어야 했다. 하늘은 움직이지 않은 채 그냥 거기 있었고, 움직이는 건 그녀였다. 하늘은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곳에 늘 존재하기 때문에 지나치기 쉽다. 버스가 광장을 지나갔다. 동상이 있었다. 말에 왕인지 정복자인지가 타고 있었다. 사람 조각은 뒤에 남았지만 말은 지난 2 세기 동안 서 있었던 받침대로부터 풀려났다. 고삐를 풀어버리고 훌쩍 떠났다. 갈기가 바람을 만나 중력의 법칙을 거부하고 떠올랐다. 말은 우아한 광폭의 속도로 공공도서관과 경찰서와 낡은 이름을 가진 기관들의 건물 파사드 위를 내달렸다. 안장도 떨어버리고 갈색빛의 두드러지는 근육을 힘껏 뻗었다. 그녀는 그걸 만지고 싶어 손을

뻘었지만, 그 순간 주먹이 창문의 알루미늄 프레임에 부딪혀 멍이 들었다. 누군가 (아마도 그녀였을 것이다) 아프다고 말했지만, 말은 멈추지 않고 빌딩 사이를 비행했다. 건물 앞을 달리기도 하고, 땅 위를 달리기도 했지만, 공기가 말을 실어 나르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바람이 얼굴에 와닿는 것을 느꼈다. 내던져지지 않으려면 몸을 앞으로 숙여야 했다. 안장과 고삐 없이 말을 타는 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언덕은 특히 더 어려웠는데, 말은 개의치 않고 창문이 줄줄이 늘어선 건물의 파사드를 너도밤나무 숲길처럼 달렸다.

가지를 조심해야 했다. 더 큰 창문을 지날 때면 회계사 얼굴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야 했다. 다른 창문에서는 놀란 미화원의 얼굴도 만났다. 그러나 이런 부류의 건물에 앉아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눈치채지 못했다. 오늘날 우리는 눈치라는 것을 채지 않는다. 푸시 알람의 등장과 함께 눈치채는 일은 낡은 것이 되어 버렸다.

에피소드 10

그녀는 딱히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말을 실제로 마주치면 좀 멋지긴 했지만 먼저 찾아 나서지는 않았다. 그래서 말이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을 때 실망하기보다는 버스에 와 다시 안심했다. 그녀의 좌굴이 모두 플라스틱 좌석 커버에 닿았다. 좋네. 어깨를 툭 떨어뜨렸다. 말의 갈퀴와 목덜미에 매달리느라 겨드랑이 쪽이 미묘하게 얼얼했다. 내려다보니 말의 거죽이 닿았던 몸통 부분에서 온기가 느껴졌다. 가슴의 모양이나 배의 완만한 곡선 같은 구체적인 몸의 형태를 살피지 않으면서 그냥 몸통 전체를 바라봤다. 그녀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꼭 끼지는 않지만 딱 맞았고 그녀의 다리는 가늘지 않고 인상적으로 탄탄했다. 스웨터 천의 질감에 자동으로 시선이 집중됐다. 뜨개질 방식에 따라 줄과 선이 패턴을 형성했다. 이음매는 천의 흐름에 꼭 필요한 중단을 만들어냈다. 천은 버스가 움직이면 다르게 접혔다. 마치 눈을 들어 올리는 법을 잊은 것 같았다. 그녀는 턱을 가슴에 붙인 채 잠시 사라졌다. 다시 말 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두운 것도 밤도 아니었다. 밀도 높은 어둠을 자각했지만 그건 마음을 어루만지는 고요로 둘러싸이는 경험이었다. 말의 움직임과 자기 움직임을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다리 안쪽이었다. 말 등과 몸통에 난 털 한 올까지도 바지의 천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말과 그녀의 다리에 닿은 수천 가닥의 솜털이 그들의 움직임을 하나로 직조했다. 그들 사이에 형성된 질감은 둘이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함께 변했다. 때로는 거칠었고 저항이 느껴지다가도, 갑자기 그 털들이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일 때면 미끄러지듯 부드러웠다. 말의 근육은 아무런 제약 없이 선명하게 느껴졌고, 그 몸통을 감싼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녀는 자기 허벅지 근육이 만들어내는 압박을 느꼈다. 둘의 근육은 그녀가 접근할 수 없는 지식의 형태로 비밀을 교환했다. 자기 근육이었지만 그 교환에서 그녀는 전적으로 배제되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감정이 가라앉자 자기 근육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하는 이 상황에 들떴다. 그녀가 몸이 보고를 올리는 상관이 아니라면? 그녀의 머리로 접수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의 파동에 불과하다면? 그녀가 경험하는 것은 이사회에 초대받지 못하는 건물의 파사드일 뿐이라면?

말의 목에 팔을 두르고 상체를 말의 갈기에 기댔을 때, 그녀는 둘의 심장박동을 조율할 수 있었다.

두 심장은 같은 속도로 몸에 피를 뿜어냈다. 그들의 숨소리는 서로의 품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건 박동이나 리듬보다는 곧 월동을 떠나는 가을 철새 떼에 더 가까웠다. 그녀는 말의 몸으로 가라앉고 있었고, 그 거죽을 투과해 살 속으로 흘러내리는 자신을 느꼈다. 따뜻한 감각이 그녀를 둘러쌌다. 둘은 온갖 건물 사이를 지나며 날고 있었음에도 아주 느린 감각이었다. 고요했고, 물결치는 흐름이 그녀를 들어 올렸다. 말의 몸은 도착이라는 개념 없이 떠오르고 떨어지는 거대한 파도 같았다. 그녀가 있는 곳에서는 파도가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파도가 깨져 푸른색과 흰색으로 뒤섞이기 직전의 강렬한 느낌을 흡수할 수 있었다. 파도가 찾아올 때마다 그녀는 변화를 경험했는데, 처음에는 무시할 정도로 작았지만, 파도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을 때 변화는 어느덧 거대한 힘을 축적한 것처럼 느껴졌다. 구르는 움직임이 몸 안에 진동하며 그녀를 사로잡았다. 파도로 떨어지기 직전, 바람이 폐를 가득 채웠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몸. 그녀의 몸인 동시에 그녀의 몸이 아니었다. 눈을 다시 떴을 때, 그녀는 다시 풀밭과 태양과 바람이 머무는 초원에 와 있었다. 그녀인 동시에 그녀 하나만은 아닌 태양이 조건 없는 온기를 내어주었다. 태양은 경계가 필요하지 않았고, 경계를 갖고 있지도 않았다. 보여주고 싶은 것도 없이 존재 그 자체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효율성도, 진자의 운동도, 측정되어야 할 거리도 없었다. 풀밭은 모든 곳에 펼쳐져 있었고 발아래에도 없지 않았다. 태양은 그녀 안에 있었지만,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저 위에 떠 있기도 했다. 그녀는 저 위에 있는 태양과 여기 밑에 있는 태양 모두의 일부였다. 그녀와 태양은 한순간에 두 장소에 있었다. 아니, 한 장소에 두 순간에 있었다.

버스를 같이 탄 사람이 있었다. 옆에 앉은 친구가 점점 더 인내심을 잃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안식처를 떠나, 풀밭과 태양과 바람에 작별인사했다. 둘은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질감을 같이 느꼈다. 친구와 다시 함께 있는 것도 좋았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그들은 나란히 앉아 있었고, 나란히 앉는 것은 조약이자, 뒤섞임이자, 변덕스러운 연속이니까. 친구와는 풀밭과 태양과 바람이 있는 초원을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가 그 경험을 전달할 수 없는 것처럼, 친구도 비슷한 성격의 장소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생각했다. 나란히 하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유기적인 하나가 되려는 운동이 아니라, 공유될 수 없는, 공유해서는 안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에피소드 11

그녀의 옆에 앉은 사람, 동료 여행자. 아니면 동반자? 마음을 정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아니, 사실 동반자는 원치 않았다. 정말로. 동반자로 규정되는 관계에는 어딘가 불편할 정도로 비대칭적인 데가 있다. 이를테면 부모는 무서운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아이를 동반한다. 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쪽은 다른 상대를 필요로 하고, 동반하는 사람은 뭔가를 보장한다. 무사히 귀가할 수 있게 하고 그밖에 있을 수 있는 많은 위험을 제거한다. 동반자는 모험을 막는 방패다.

그럼 그들은 친구인가? 그것도 아니었다. 둘은 서로에 관해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알아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어쩌면 건강한 관계보다 더 많이? 친구와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우정에는 어딘가 끈적한 데가 있다. 친구는 왠지 곁에 있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고, 바쁜 것은 다

제치고 무조건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느낌이다. 불편한 걸, 그녀는 생각했다. 그러지 않으면 오직 하나의 화폐로 귀결됐다. 죄책감. 그걸 거래하는 은행의 이름은 복수다. 그녀는 보증된 우정에 딱히 마음이 끌리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관계를 가치의 배치로 환원한다는 게 어딘가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언제나 네 곁에 있었어’라는 문장 뒤에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런, 저런 의무가 있어’라는 말이 따라온다면. 허가증이나 보증금에 서명하는 것처럼 말이다. 우정은 계약이 되어서도 안 되고, 상호호혜가 그 기반이 되어서도 안 된다.

아는 사람 중의 하나는 3 주에 한 번씩 그녀에게 연락했다. 그 습관이 생긴 이래 그녀는 그자를 더는 친구로 여길 수 없었다. 반짝였던 관계가 사업 계약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어쩌면 대도시 사람들 특유의 태도일지도 모른다.

둘은 그 어떤 고전적인 의미에서도 친구라고 볼 수 없었다. 그들 사이에는 서로 곁에 있어 준다는 것이 상호호혜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전혀 없었다. 그들 간에는 그 어떤 ‘거래’도 없다는 것이 그녀에게 큰 안도감을 줬다. 빚도 확실히 없었다. 그들의 관계, 혹은 비-관계는 무조건적이었다. ‘나는 언제나 네 곁에 있어’라고 말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기대는 모두 버려지고 뒤로 밀려났다.

재미있게도, 그들이 함께하는 여행은 그 어떤 신뢰도 기반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바로 그래서 그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활기차고 기민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부재는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배신의 결과물도 아니었으며, 그들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매 순간을 협상하게 했다. 다음이 핵심이었다: 그들의 관계에서는 각자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았고, 모델이 없었으며, 책임과 관련해서 정해진 것이 없었다. 에피소드가 없었고, 그냥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속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아우성이 공유될 수 있는 것이라면, 아마 이 관계를 그릴 수 있는 좋은 이미지일 것이다. 그들이 함께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은 궤도나 정착지가 아니라, 풍경이었다. 그리고 운 좋게도 이들은 지도를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다.

동반의 관계에서는 합의된 윤리가 존재하며, 그 합의는 제삼자에 의해 강화되는데, 여기서 제삼자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관습인 경우가 많다. 한 관계가 이처럼 바깥으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바깥의 시선에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동반 관계의 윤리는 결코 동반자들의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부과되는 윤리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책임을 지는 것과, 한 사람이 자신이 마주한 상황에 적합한 책임의 역학을 판별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전체와 한 개인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비교적 간단하다. 따라 하면 되는 대본이 이미 존재하니까. 그녀가 살면서 마주하는 거의 모든 상황에는 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식으로 참여하면 되는지에 관한 프로토콜이 주어져 있었다. 관습적인 의미의 책임은 위계적이고, 모든 것을 동질화한다. 그녀가 게으르고 안전한 곳에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닌 이상, 왜 그런 권력 앞에 자기 자신을 노출해야 한단 말인가.

다시 생각났지만, 그녀는 필경사 바틀비를 좋아하지 않았다. 어떤 난관 앞에서 ‘그러지 않는 편이 낫겠습니다’라는 형태로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히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필경사를 우러러보았지만, 그녀에게 그는 수동적 공격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고 모든 각도의 접근을 무력화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었다. 때때로, 특히 높은 하이힐 구두를 신었을 때, 그녀는 그 필경사의 위대함과, 어떤 이는 선불교적인 세계관이라고 묘사하는 필경사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멍청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녀는 멜빌의 소설을 분석하는 책도 몇 권 읽어봤지만, 몹시 지루해 잠들어버리거나, 그 작가들이 어딘가 바틀비를 극기심 강한 캐릭터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갈피를 잃어버렸다. 그녀에게 바틀비에서 유일하게 모호한 지점은 그의 직업 묘사였다. 그는 계약인지 매뉴얼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을 카피했는데, 그녀는 카피, 즉 복사하는 행위가 생산이나 창조 행위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인지 궁금했다. 그녀는 스키장이나 유람선에서 밤마다 커버 송을 부르는 밴드들을 떠올렸다. 매일 매일 다른 사람의 독창성을 카피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 그 실천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독창성, 창의성,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의 인정조차도 부차적인 것이 되거나, 무가치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감탄스러웠다. 댄스 플로어에서 창조적이고 잘나 보이고 싶은 욕구는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물론, 자신이 반동적이라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그녀는 디스코나 클럽에서 재미있는 사람처럼 보이거나 특별해 보이고 싶은 사람들, 그냥 춤에 몰두하거나 춤만 추는 것으로는 불안해서 과도한 유머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비극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춤은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정체성, 책임감, 승인으로부터 잠시 쉬는 시간을 갖는 것. 현실 도피주의적이긴 하지만, 계급, 나이, 키, 젠더, 성적 지향, 심지어는 인종으로부터도 잠시 벗어나는 것. 그녀는 ‘평등’과 ‘동등하게’를 구분하기를 좋아했다. 중요한 것은 평등이 아니라, 동등하게 존재하는 것이었다. 모두 동등하게 댄스 플로어에 존재할 때. 물론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은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다. 자기가 살짝 용해되는 경험이니깐.

그녀는 책임감에 관해 정해진 규정이 약하거나,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관계, 상호작용, 반응, 활동, 지지, 권력 등이 새롭게 표현되고 이해되어야 하는 환경을 찾고 있었다. 이런 장소나 맥락에서 신뢰는 실천하는 것이지 충실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이런 실천은 그것이 무화하고자 하는 기존의 규칙을 재생산하지 않도록 세심히 검토되어야 했고,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했다. 평등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계속되는 실천이다. 그 역할은 누군가 나와서 “잔, 이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라고 외치는 일이 없도록 살피는 것이다.

매번 다른 목소리 톤과 강세로 말하긴 했지만,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른다. “충성과 연대는 호환될 수 없다.” 충성은 기사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맹세하는 것이다. 그것은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돌에 새기는 것이다. 연대는 실천하는 것, 계속해서 실천하는 것이다. 영어로는 균형을 말하는 밸런스와 저울을 말하는 밸런스가 같은 말이라는 것이 참 안타깝다. 균형은 결코 완벽한 평형에 도달할 수 없다. 감지할 수 없더라도 저울은 언제나 조금은 균형이 안 맞는다. 균형은 언제나 연속적이고, 심각하게 불확실하다. 그녀는 균형과 연대가 친구는 아닐지 모르지만 서로 우호적이라고 생각했다. 반면에 충성은 근처에 누가 있던 언제나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맞은편에 앉는다.

그녀는 경계의 중요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늘 불편했다. 어쩌면 그녀가 폭력에 관해서 너무 예민한 것일지도 몰랐지만, 경계는 그녀에게 정확히 폭력으로 느껴졌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야. 뭐가 괜찮은지,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

그녀에게 경계라는 개념은 폭력의 탄생을 말했다. 함께 살기 위한 인간관계가 ‘금지’를 기반으로 할 수는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부터가 이미 어떤 경계 안에 심어지는 것 아닐까? 그녀의 이름은 샌드위치를 너무 짭조이고 있는 셀로판지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이름이 만들어 낸 그녀의 많은 부분. 이름 때문에 그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경계들. 주어진 이름을 받아들이기 위해 한평생이 걸렸지만, 개명하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정체성에는 언제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녀는 자기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특권은 보유 여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의 문제였다. 특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특권을 어떻게 재산의 한 형태로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

정체성이 없다면, 자유로울 테지만, 안중에서 사라질 것이다. 경계 없이 살 수 있겠지만, 티켓도 살 수 없고, 목소리도 가질 수 없다. 정체성은 뭔가에 맞서 싸우고, 목소리를 내고,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이지만, 분명한 감옥이기도 하다.

미처 생각이 정리가 안 되었을 때 동료 여행자가 그녀를 불렀다. 하지만 이 감옥이 그토록 많은 사람의 마음을 끈다는 것이 몹시 이상하면서도 분명했다. 특히 가장 낮은 바닥에 사는, 아직도 설 자리가 없는 사람들과 가장 잃을 것이 많은, 하늘에 가장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 모두의 마음을 끈다는 것이. 감옥이 없다면 목소리도 없고, 목소리가 없다면 투쟁도 없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감옥은 변화를 방지하는 보증서이자, 가치의 수호자다.

나란히는, 이 감옥을 조금은 덜 두드러지게 만든다. 맞은편보다 나란히를 선호하는 것은 저항의 한 형태라고 생각했다. 작고 미미하지만, 고집스러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에피소드 12

“우리 빨리 내려야 해. 제발, 위급하다니까?”

그녀는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자기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건 그녀의 일부에 불과했고 전혀 신나는 일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자기를 마주하고 놀랄 수 있다는 사실을 즐겼담. 그녀는 꽤 어린 나이에 진정한 자기를 찾는 일에 관심을 잃었고 자기의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근본적으로 진정성이 없는 사람이었다. 지금이나 수 세기 전이나 세상에 이토록 많은 인간이 진정한 자신을 찾는 일에 몰두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물론, 사람들은 원래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걸 좋아하지만, 이 경우에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은 그토록 많은 사람이 자신을 발견하고 나면 삶이 얼마나 지루할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아니, 온갖 여행, 워크숍, 영적 스승. 신비로운 산으로 떠나는 여행이나, 향이 나는 촛불이나, 오직 모순어법으로만 말하는 엄청나게 늙은 노인. 다 좋았다. 그런 모험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지만 진정한 자신은 정적이고, 안정적이고, 구식이고, 이 세계 혹은 이 우주와 동일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자신은 움직일 수도 없고 변화할 수도 없는 본질이니까. 변주될 수

없는 단일한 하나일 테고. 진정한 자신은 행복도, 비극도, 애도도, 슬픔도, 죄악도, 부끄러움도, 형편없는 농담도, 쾌락도, 죄책감이 드는 쾌락도, 자기연민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작은 후회 정도는 느낄 수 있으려나. 세속적인 세계를 넘어 고양된 상태에 이르는 것, 내적 고요, 내면이 텅 빈 상태가 되는 것이 뭐가 좋을까. 그녀는 내적 동요나 걱정, 사랑에 빠지는 경험이 없는 삶은 정말 보잘것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기 페미니스트 친구들이 정체성은 유동적이라고 확신하면서도, 동시에 진정한 자신을 찾으려는 각종 실천에 완전히 몰두하는 것이 거의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다. 유동성과 진정성은 양립할 수 없다. ‘절반만 열린’ 갈달까?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실은 단계별로 젠더를 승인해주는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계급과도 관련이 있다. 진정한 자신에 몰두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특권층이며 나머지 사람들은 대체로 일하러 가기 바쁘다. 수십 년을 바쳐야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은 어딘가 역설적이다. 만약에 진정한 자기 자신이 20 분 만에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래도 남은 29 년 몇 개월을 산에서 자기성찰 하면서 한쪽 손뼉을 치며 버텨야 하나?

“갑자기 뭐가 그렇게 위급해?” 그녀는 무심결에 이렇게 말하고는 자기가 동료 여행자와 같은 단어를 썼다는 사실에 놀랐다. 보통 때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다. 위급하다는 말은 유예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위급하다’는 말은 ‘구무적대다’의 반대말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미루다’의 반대말에 반대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끝나지 않는 서스펜스랄까. 뭔가 더 급한 것이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

“우리 여기서 내려야 해. 지금. 빨리 와, 빨리, 서둘러!”

그들은 짐을 뒤죽박죽 들고는 통로를 지나쳐 문이 닫히기 직전에 간신히 내렸다. 놀랍게도 그들은 도시 이름이 유래한 강을 가로지르는 한 다리의 중간에 있었다. 이 다리는 거친 나무로 되어 있었고 철제 계단이 여러 층의 인도로 연결된 대단히 복잡한 건축 구조물이었다. 말들이 다리에서 사방으로 쏟아져 나왔고 끝없이 이어지는 말발굽 소리가 다리의 목재와 빈 곳들을 울리면서 귀청이 터질듯한 소리를 냈다. 무거운 회색 모직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큰 천으로 감싼 과일, 야채, 가축, 털실 보따리 등을 들고 다리의 어스름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밝은 곳으로 발을 내디뎠다. 소작농 여자들은 머리에 소시지, 마른고기, 절인 생선, 견과류와 허브 등을 쏟아지기 직전까지 채운 바구니를 이고 시장에 이것들을 팔러 가고 있었다. 사람들 다리 사이로 돼지들이 짹짹대며 뛰어다녔고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그 뒤를 따랐다. 건너나 말에 탄 남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성거리거나 끝없는 동쪽의 숲길로 떠났던 여정에서 돌아와 도시 으스스한 곳에서 싸움거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예능인들이 다리가 도시와 만나는 지점에서 마술 묘기를 부리는 동안 시뻘건 얼굴을 한 실력 없는 음악가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코맹맹이 소리를 내는 백파이프 연주를 들으라고 강요했다. 그 사이로 잡상인들이 지나다니며 끝도 없는 사기와 볼거리, 다단계 판매와

아바위 놀이를 들이댔다. 그 옆에서는 그들의 어린 후배들이 녀름을 입고 소매치기를 했고 사람들의 귀중품은 허공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귀부인들은 마차의 나무 좌석에 앉아 지나쳐갔다. 그 옆에서는 상처 입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나오고, 정신이 온전치 못 한 사람들은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숙취를 떨쳐버리려는 술주정뱅이들 옆에 앉아 혼잣말했다. 담배를 피우면서 허풍 떠는 젊은 남자 무리가 있었고, 다리 건너편에는 고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서 있었다. 성벽 바깥의 산맥에서 불어오는 춥고 습한 바람이 모든 것을 쓸어내리듯, 이 모든 사람이 다리의 좁은 문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한 해의 이맘때쯤이 되면 깊은 숲에서 내려와 도시에서 쉴 곳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야생의 풍경이 두려운 사람들과, 반대로 도시의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미로 사이로 몸을 숨겨야 하는 이들이었다. 다른 사람이 관심을 보일법한 귀중한 것, 지켜야 할 것들을 가진 이들은 도시에서 피신처를 찾았다. 방해받지 않기 위해 난리 통에 숨는 이들도 있었다. 모두 생존이 걸려 있었고, 연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았다. 여기서 유효한 것은 할퀴고 물어뜯는 것, 사기 치고 비열한 계락을 짜면서 자기 길을 개척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공유하는 지평과 이해가 있었다.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하건, 노력은 공동의 산물이었고 많은 말을 쏟아내지 않고도 서로서로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대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대부분은 냄새나는 성기를 가리키는 말로 잔뜩 버무려진 욕설이었다.

이 혼란 속에서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나무다리를 건너면서 일종의 만족감과 가벼운 기분이 그녀를 휩쌌다.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이 세계와 그녀가 조화를 이루는 기분은 그녀가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걸 찾아야 해. 찾지 못하면 이 모든 게 다 허사로 돌아갈 거야.” 동료 여행자가 옆에서 불쑥 나타나 소리 질렀다. 그들이 뭘 찾는 건지, 뭘 잃어버린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 과정에 그녀도 연루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쩌다가 그 옆에 있게 된 것인지도 몰랐다.

그들이 거의 다리 끝에 다 와 갈때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둘을 다리 끝으로 밀어붙였고, 그들은 어쩔 도리 없이 강둑으로 연결되는 철제 계단을 내려와야 했다. 물은 침전물 때문에 갈색빛이었고, 사람들의 분노와 썩어가는 것들이 뒤엉켜 섬을 만들었다. 새들은 그 위에서 질투와 상상을 합친 것보다도 더 독성이 강한 거대한 벌레들과 어울렸다.

계단을 충분히 내려가자 소리가 조금 잦아들었다. 주머니와 가방을 챙길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생겼다. 둘은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내주기 위해 걸음을 천천히 옮겼다. 계단이 끝나는 곳에서는 밖에서 흰히 보이는 움푹 들어간 공간에서 아이들이 이미 수년 전에 안감이 찢겨져나간 낡은 코트를 덮고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 고개는 돌아가 있었고 영양이 부족한 그들의 몸은 윤곽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르고 더러운 피부에서 스며 나오는 공포는 코트를 뚫고 나와 얇은 안개가 되어 영혼에 어둠과 절망을 불어넣었다. 그녀가 직전에 느꼈던 조화로움은 순식간에 사라져 어느새 뼈에 시린 바람이 불었다. 갈색 모직 드레스 아래에 입은 페티코트의 허리띠가 갑자기 피부에 축축하게 닿았고 그녀는 척추를 따라 차가운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왼손을 들어 가슴 가장 윗부분을 짚었다. 손을 아래로 쓸어내리자 가슴뼈를 따라 열게 땀이 나 있는 것이 느껴졌다. 이 불쾌함을 떨쳐버리기 위해 손을 몇 번 부드럽게 쓸어내렸고 놀랍게도 여러 겹의 천 아래에 젖꼭지가 딱딱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황한 그녀는 그런 신체적 반응이 악마의 작용은 아닐까 생각했지만 당혹스럽게도 차가운 땀의 불쾌함은 가슴 부근의 온기와 함께 찾아왔다. 그 온기는 마치 음모를 타고 흘러내려 음순을 감싸듯이 배꼽 아래에서 증폭되었다. 그런 자신이 역겨워 이 감각을 내쫓으려고 했지만, 그녀가 더 거센 분노로 몸의 반응을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쾌락의 감각은 더 커졌다. 그 감각은 상체의 가운데에서 습한 냉기와 뒤섞여 몹시 불편한 긴장 상태를 불러왔다.

그녀는 절박하게 동료 여행자의 팔을 찾았다. 찾자마자 한 손으로는 그의 팔에 매달리고 다른 손으로는 눈을 가리며 몸을 앞으로 숙여 거칠게 코로 숨을 쉬었다. 자기가 계단 위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을 알았고 어린아이의 얼굴을 한 뚱뚱한 여자 하나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할 길이 없었다. 이성적으로는 끔찍하게 느껴지는 욕망의 형태가 그녀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란 어려웠다. 대체 어떤 자극 때문에 이 뚜렷한 성적 감각이 몸에서 피어난 것일까? 최악일 뿐만 아니라 이단에 가까운 욕망이 자기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인식한 이후에도 자신을 견디며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물리적인 현현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나 그 경험을 부정할 수는 없는 욕망. 그녀는 자신의 성적 흥분에 이렇게까지 노출된 적이 없었다. 그녀의 몸은 뭔가를 원했고, 이 사실은 그녀에게 분명했지만,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에피소드 13

암흑 속에 잠겼던 꿈들이 떠올랐다. 그녀가 방금 경험한 것, 그녀의 몸이 반응을 일으킨 그 대상은, 풀밭과 태양과 바람이 있었던 초원도 아니었고, 처음에는 구역질나는 기분을 들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곳이 자기가 돌아야 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았다. 암흑 꿈들은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 말고는 서로 잘 연결되지 않는 인생의 시기들에 주기적으로 등장했다. 악몽도 아니었고 그녀의 영혼을 달래주지도 않았다. 독방에 갇힌 것 같은 정적인 감각도 아니었다. 감옥도 아니었지만, 심연으로 열린 어둠도 아니었다.

때로는 초원과 풀밭과 태양과 바람으로부터 거리를 뒤야 할 때도 있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고, 그곳을 대체해서 자기를 내맡길 수 있는 수 있는 다른 곳도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도 친숙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곳으로 도피하지 않는 것은 때때로 그녀에게 시급한 일이 됐다. 초원과 풀밭과 태양과 바람이 있는 장소의 특징은 표류하는 감각, 차분한 수평의 파도에 사로잡히는 감각을 누리며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꿈속 암흑에서는 뭔가 다른 이유로 표류하는 대신 머물러야 했다. 머무르도록 허락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불가피한, 행동을 촉구하는 강렬함 때문이었다. 그녀는 초원과 풀밭과 태양과 바람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도피하는 자신을 증오했다. 그곳은 망각의 장소이자 수동성의 장소였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변화가 존재하지 않았고 모든 것과 연결된 기분, 모든 것이 제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기분만이 중요했다. 암흑은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그녀에게 관여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그녀가 손을 뺀 즉시 뒤로 물러났다. 모든 것의 가용성은 얻기 힘든, 텅기는 감각으로 교체됐다.

초원, 풀밭, 태양, 바람에서는 바라보는 것과 그곳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 모두 중첩된 이미지로 존재했다. 마치 보는 것과 그 안에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은 이미지였고 그 이미지들은 그녀가 모든 것의 일부라는 점을 승인했다. 이곳에서는 그녀가 반대할 수 있는 것도, 심지어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것도 없었다. 그곳은 의견이 부재한 곳이었고 그녀는 자기 목소리가 잠재워지는 듯한 경험을 흐릿하지만, 분명히 했다. 규율의 개입이나 징벌보다는 안락한 통제 과정 같았다. 값비싼 구스다운 베개에 싸여 질식하면 이런 느낌일까 상상했다.

암흑은 그녀에게 뭔가 다른 것을 요구했다. 말을 하라고, 목소리를 내라고, 개입하라고 보냈다. 암흑은 이미지를 실어 나르지도, 그 무엇도 소통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이미지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게 했다. 꿈속 암흑은 이미지를 만들게 하지만, 그 이미지가 무엇이어서 하는지를 규정하는 틀이 아주 적거나 아예 없었다. 이건 그녀가 포착한 이미지가 아니라, 만든 이미지였다. 그것들은 그녀의 창조물이었는데, 혼란스러운 점은 이 이미지들이 뭔가를 승인하지도, 그녀의 소유물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녀가 만든 이미지였지만 그녀에게 속하지 않는 이미지였다.

두리 다리 밑으로 점점 더 내려갈 때쯤, 그녀는 눈을 찡그리고는, 그건 이미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암흑 속에서 진짜로 일어나는 것은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무시하기에는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은) 그녀가 발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다. 발상을 갖는 것과 발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발상을 갖는 것은 쉬운 일, 비교적 쉬운 일이었지만, 그것을 창조하는 것은 전혀 쉽지 않았다. 발상은 암흑, 완벽한 불투명성을 필요로 하는 창조 행위니까.

발상은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머문다. 발상은 예측할 수가 없고 그 어떤 책임도 갖지 않는다. 그녀가 초원, 풀밭, 태양, 바람에 머물렀을 때, 그녀는 모든 것으로 용해되었고, 모든 것이 그녀가 되었지만, 그건 그것들 안으로 떨어져 내리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마치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고, 집이나 사람에 딸린 정원처럼 그녀가 소유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고립된 느낌, 개인적인 감각 옆에 암흑이 놓였다. 암흑에서는 이미지, 그리고 발상들이 그녀로부터 발생하지만, 그녀에게 소유되지도, 그녀가 그것에 소유되지도 않는다고 느꼈다. 암흑 속에서 그녀의 정체성은 흐릿해져 거의 지워졌으며 그녀에게서 발생하는 것들은 공적인 것, 모두의 것처럼 느껴졌다.

무슨 상관이야, 그녀는 결론 내렸다. 발상은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누군가 그걸 집에 가져가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순간 그것은 더는 발상이 아니라 제안이 되고, 어쩌면 이론이나, 주장, 혹은 더 심하게는, 조언이 되고 만다.

그녀가 다리 위에서 벽에 머리를 기대고 잠을 청하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영혼에 괴로움과 고통을 불어넣는 안개를 통과하면서 경험한 것, 그녀의 몸이 표현한 것은 뭔가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재하고 존재했지만, 그것은 어린아이들을 향하지도 않았고, 그녀가 마음을 열어 받아들인 가난과 고통에 대해 인과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 몸 안에서 그것을 인식했고, 뭔가 행동을 할 준비가 됐다. 몸에 남은 관능적인, 심지어는 성적인 감각, 그 욕망이 그녀에게 불려온 어떤 불가역성, 그 앞에서 완전히 알몸이 된 것 같은 감각, 그녀에게 일어났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을 이해하거나 거기에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은 연속의 한 형태였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자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반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반사였지만, 태양이 유리

만들어내는 종류의 반사였다. 빛이 잎사귀들을 통과해 그림자를 만들어낼 때, 성당 창문의 색유리들이 섬세한 색채들을 만들어낼 때.

그녀의 몸을 구역질로 떨리게 했던 감각. 자기 자신이 두려워졌던 그 감각은, 꿈속 암흑이 현실로, 혹은 현실로부터 새어 나오는 것이었다. 그녀의 몸에 움직임을 불어넣었던 온기가 손에 만져질 듯 했다. 그녀를 부르는 것은 암흑이었다. 숙주를 찾는 발상들이었다.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에피소드 14

그녀는 눈을 감았고 코로 들어오는 숨을 느꼈다. 찬 공기가 척추를 휘감으며 어깨뼈 사이의 공간을 약간 확장했고 곧이어 공기로 부풀어 오른 폐가 명치를 아래로 끌어내린 결과 배가 앞으로 튀어나왔다. 눈을 감고 들이마신 첫 숨은 그녀에게 일시적인 자유처럼 느껴졌지만, 기도를 통해 몸으로 들어오는 두 번째 들숨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특히 오늘은 강렬한 하루였기 때문에, 고통과 고장 남, 심지어는 거절의 기분에 흠뻑 젖은 이야기들이었다.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어느날 아침, 마지막으로 몸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병원이 아니더라도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몇 년 전 일하던 중에 부상을 입은 후, 등 아랫부분과 골반 통증 때문에 매일 밤잠에서 깼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몇 달간 잠을 설쳤고, 꿈이 험해서 아주 얇게 쉴 수밖에 없었다. 통증을 떨쳐 버리려는 노력은 큰 도움이 안 됐다. 몇 주 만에 (당시에는 반투명이었던) 그녀의 의식 뒤로 우울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잠드는 것이 두려워졌다. 수면 상태로 들어가는 순간 끊임없이 그녀를 갈아대는 고통이 우울증을 초대하고, 이 손님은 머지않아 영구적으로 머무를 구멍이나 균열을 찾아낼 것 같았다.

같은 건물에서 살던 한 노인은 자기가 한평생 공사 현장에서 일했는데 온몸이 아파서 일찍 은퇴했다고 했다. 딱히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몸이 너무 마모되어서 한두 곳이 아니라 전체가 끊임없는 통증에 시달렸다. 그는 활기찬 인물이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고통에 떨리는 그의 기운이 느껴졌고, 그것은 곧 그의 소멸과 존재를 정의하는 고통이었다.

두 번째로 폐에 공기를 넣었을 때는 불평불만이 한 뭉치 들어왔다. 다시 돌아가면 회복을 위해 시간을 좀 보낼 것이다. 몸의 비대칭을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서 평안을 찾을 것이다.

그녀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 마모된 몸의 고통 속에서 평온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난데없이 뉴욕 맨해튼에서 길을 찾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생각났다. 도로에 번호가 붙어 있으면 길을 잃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빅 애플에서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는 모를 수 있지만 길을 잃을 수는 없다. 다음 거리가 더 높은 숫자이거나 더 낮은 숫자일 수밖에 없으니까.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뉴요커라고 여기기까지 3 일밖에 안 걸리는 걸지도 모른다. 다른 도시, 이를테면 아시아의

도시들은 반대로 작동한다. 그곳에서는 거의 언제나 길을 잃은 상태이지만, 자기가 어디 있는지는 안다. 왜냐하면 그곳은 언제나 ‘여기’니까. 그녀는 여러 번 다시 태어나야만 그 도시를 이해하고 제대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도시에서 살아본 적이 있다. 참고로 이런 곳에서 지도는 전혀 도움이 안 됐다. 물론 그녀는 후자의 도시를 훨씬 선호했다. 삶이, 특히 거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진동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대체로 두 종류의 대도시가 있다고 생각했다. 어떤 도시들은 언제나 종말 하루 전처럼 느껴졌고,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리게 되는 임계점을 지연시키기 위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았다. 이런 도시들은 과거에 매달리고, 역사에 자부심을 가졌다. 보존하는 것, 도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이런 도시들을 지배하는 것은 몽마르트르를 걸으며 정통성이나 가치, 젠트리피케이션이 얼마나 큰 해악인지 등을 이야기하는 동질화의 힘이다. 반대로 언제나 종말 다음 날처럼 삶이 흘러가는 도시들이 있다.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것처럼 앞으로 몸을 기울인 채 나아가는 도시들. 종말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기다릴 게 없는 도시들. 잔해를 주워 노트르담을 재건할 것인지, 관습이나 규범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고 새 도시를 만들 것인지. 질서는 형편없지만 열려 있는 도시는 외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7 층에는 물리치료사, 회계사, 하이엔드 헤어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 같은 건물 8 층에 식당이 있어도 괜찮다. 그녀는 너무 여러 층위를 가진 도시들을 좋아했고, 동네에 아무런 일관성이 없지만 그래도 거리를 깔끔하게 유지할 만큼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들의 질감을 사랑했다. 질서정연하게 자연의 무질서를 유지하는 도시, 그러면서도 당연히 자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도시. 구조적으로 너무 엉망진창이어서 보살펴야만 하는,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도시.

그녀는 초원, 풀밭, 태양, 바람과 암흑이 너무도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에 어딘가 짜증이 났다. 그건 모든 걸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둘 중의 하나를 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영화에서 윤리적으로 복잡한 상황 때문에 두 관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말이다. 영화에서는 언제나 밝은 쪽과 어두운 쪽이 있고, 어두운 쪽은 언제나 모두가 억압에 동의하고 숭배하는 위계적인 구조로 표상된다. 반대로 밝은 쪽은 언제나 즉석 회의 같은 곳에 행복하게 모여 서로 다인종으로 구성된 부족의 미래를 고민했다. 미래는 다중적이었고 다각적이었다. 지혜롭고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옆에 앉고 둘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화면 바깥에서 도사리고 있는, 힘을 확장하고 싶어 안달이 난 어둠의 세력만 아니었더라면.

초원, 풀밭, 태양, 바람과 암흑은 둘 다 그녀가 언제나 길을 잃었지만 자기가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아는 장소들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었지만, 여기는 언제나 그 모든 곳이었다. 초원, 풀밭, 태양, 바람에 있을 때 그녀는 주변에 통합되었고 주변이 그녀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여기’ 있을 수 있었다. 그녀는 제 자리에 있었다. 그녀를 세계에서 분리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세계가 그녀 안에 있었다. 거기에는 지도가 없었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같은 확장의 움직임이나 박동하는 움직임밖에 없었다. 분리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주변 환경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방향성은 흐릿해지고 모든 것이 평평해졌다. 그녀와 그녀의 주변 환경,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이 수평선과 동일한 것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녀와 그녀의 주변 환경, 그리고 수평선은 모두 시들어갔다.

암흑, 그녀의 암흑은 완전히 다른 것인 동시에 다른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서도 그녀는 환경으로

통합되고 환경이 그녀로 통합되었다. 암흑에서도 지도는 불필요했다. 암흑에서는 위계가 불가능했고, 모든 것은 공존의 상태로 떠올랐으며, 수평선은 존재할 수조차 없었다. 그녀 안의 암흑은 그녀 안에 있었지만,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아무런 특질을 갖지 않는 것, 정체성이 부재한 것이 어떻게 누군가나 무엇인가에 소유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암흑이었고, 그 어떤 관심도 없었으며, 완벽하게 무심했다. 암흑은 개방성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개방성은 일종의 경계로, “여기까지, 더는 못 감”을 내포하는 반면, 암흑이 실천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열림이었다. 암흑에는 그 어떤 경계도 없었다.